

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6호 (10월 5~11일)

특집

미제의 보복전쟁과 일본의 재침책동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노작)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 중앙위원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에 대한 토론을 제안

일본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재발의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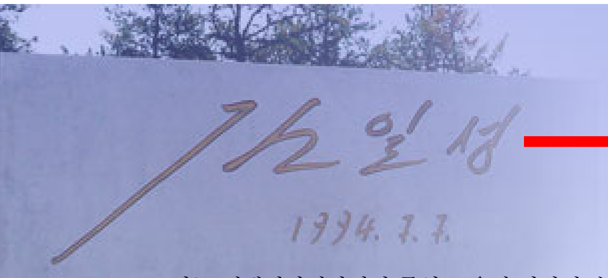
6.15WEEKLY

제16호 (10.5~11)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주체77(1988)년 10월 18일



나는 세계평화리사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과 모든 외국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이번 평양회합은 현 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 길에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완강한 투쟁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국제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인류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달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다그치고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침략과 략탈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야망밑에 이 지역에 방대한 핵무력을 전개하고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아세아, 태평양지역에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 당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것은 오늘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과정을 촉진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정세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 쥐기 위한≪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 핵무기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올림픽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주변바다에 집결시켰던 항공모함타격전단들을 올림픽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끌어 내가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적소동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핵무기가 남조선에 전개되여 있는 조건에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반도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적범위로 확대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로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다국적군축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침략책동과 분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적변혁에 대한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두어야 할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없으며 더우기 비핵국가인 우리와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 들이고 그곳을 핵기지로 만들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쏘미사이에 일부 핵무기를 철폐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에서도 핵무기들을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의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공동으로 투쟁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주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번 평양국제회의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국제적 여론을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조선반도와 전반적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현 시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전쟁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강력한 국제적 유대를 이루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이르는 곳 마다에서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군대와 침략적 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현 시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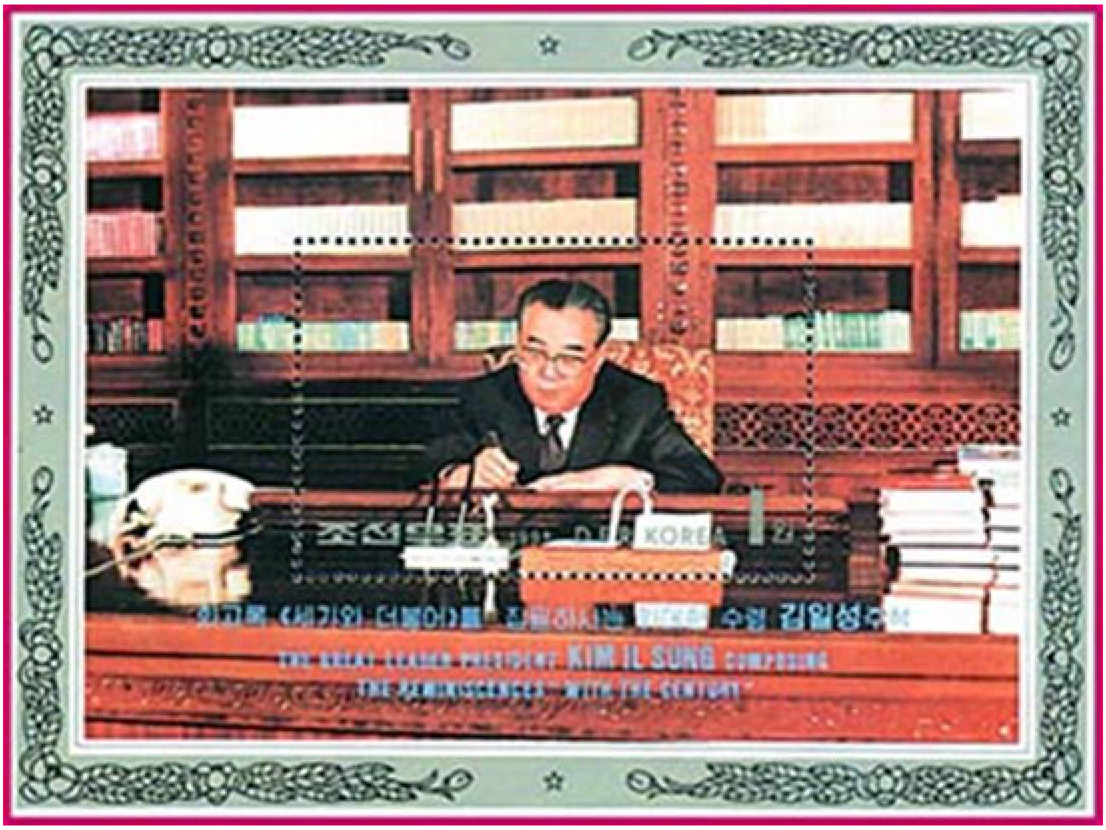
우리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평화애호나라들의 건설적인 발기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핵무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가 인류의 평화위업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기를 바랍니다.

5. 새 무장력의 탄생(2)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

나는 남의 집 뒤골방에 배겨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류본초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울리었다. 그런데 그날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는 조선청년들을 70-80명이나 붙잡아 성시로 끌어왔던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류본초선생한테로 뛰어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네 사병들이 조선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왜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 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왜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구.≫

류본초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돈화, 안도, 무송,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침략야망을 폭로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류본초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겠는데 일없어. 내가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지요. 그것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이면 그때 내가 류본초선생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의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시절부터 서로 격의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류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내가 류본초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류본초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사람들이 다 공산당일 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 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보이었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놈들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래두 공산당이 일본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않게 집요하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책을 보고 아십니까? 말을 듣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구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구 해. 그래서 나두 나쁜 줄로 알구 있는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한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었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좋은 당장줄 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놈들하구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동안 듣고 있더니 ≪음,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하고 말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들 속에 은밀히 들리었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는 어데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가운데서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었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었다. 우리 앞에는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문어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조선인고문이 말썽을 부리었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 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촉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느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거 부대에 조선사람이 한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었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바랍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였다.

그도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어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죽으니 이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하면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호의적인 분위기속에서 결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자리는 호진민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책임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류본초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우사령은 조선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뭇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그럼 부대를 뭇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총부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념려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총부리를 돌린다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같은 햇내기들을 못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편에서 대장이 롱담을 진담으로 들은게 아닌가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류본초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별동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하고 말하였다.

류본초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별동대 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성원들과 우사령부대에 억류되었던 70-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의 손을 량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리요!≫ ≪대성공이요!≫하면서 온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호진민은 나에게 가치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연기에라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치담배를 물고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랫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호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원참, 담배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빨찌 대장을 하나.≫

호진민은 이런 롱까지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골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갔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다 듣게 만세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룡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홍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쇠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룡이 ≪아리랑≫과 같은 비가를 부른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김철이 김일룡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룡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두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숱한 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룡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룡의 한생은 그대로 그 시련의 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해본 사람이었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아였다.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수난에 찬 생애였다.

≪아리랑≫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이다.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고 좌절에서 돌격에서 넘어가야 할 그 력사의 분기점에서 김일룡은 ≪아리랑≫으로써 곡절많은 과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푸른 하늘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것이었다.

그때 로상에서 류본초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가.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군한다.

우사령부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류본초선생이었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밖에까지 따라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못할 담판의 나날과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련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군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리광에게 우사령과의 담판내용과 조선인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리광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개 중대의 인원을 리광에게 보내어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 것은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은 우리와 리광이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는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빠른 시일안에 반일인민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기있게 다그치였다.

…

동포애의 대화폭

구국의 소리 9월 28 ~ 30일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지성어린 구호물자를 보내줄 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1984. 9)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파고드는 거있죠. 이 땅에 대수재가 났을때 북에서 도와준 그 순수한 동포애적 구호가 바로 그런데요. 당시 초등학교 꼬마였던 저도 그때 생각만해도 그 고맙던 마음이 그냥 살아나는데 어른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하겠다고들 하시잖아요. 양정아씨와 오일씨 두분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아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양정아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남의 수재민들에 대한 이북의 구호조치가 있은 때로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동포애의 정으로 성의를 다해 도와준 북녘동포들에게 감사한 마음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오히려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깃든 혈육의 뜨거운 정과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오 일 : 지금에 와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감회가 참 깊습니다. 주체73 (1984)년 8월말, 9월초에 보기드문 대홍수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재가 났었죠. 겨우 몸만 피한 생명들이 한데 나앉아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참 한심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때 당국이 발표한데 따르더라도 350여명의 사망자와 20만 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만 6,700여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많은 농경지가 유실매몰됐었어요.
양정아 : 그런 그 참혹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재민들에게 전두환집권자가 보여준 작태는 정말 반민중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밖에 표현할길 없는거 아닙니까.
오 일 : 네, 그렇죠. 그 자는 불행에 우는 한겨레인 수재민들을 구할 생각은 조금만큼도 없고 오히려 일본으로의 아부행각을 떠났던 겁니다. 천재의 문제로 집과 가산을 잃고 비탄에 우는 수재민들의 고통을 두고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셨어요.
양정아 : 그당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셨다죠?
오 일 : 그렇습니다. 동해안지구를 현지지도하시다가 이남의 수재상황보도를 보셨답니다. 그날 현지지도일정을 마치시고 숙소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비가 그칠줄 모르고 억수로 퍼붓는걸 보시면서 이렇게 비가 퍼부으면 이남에 영락없이 홍수가 나겠다고 몹시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남 민중들이 고통을 당할게 아니냐고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정아 : 가까이 둔 자식보다 먼데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그대로였죠.
오 일 : 그렇죠. 장군님의 그 동포애의 사랑에 의해서 북의 은정어린 구호조치가 발기되고 끝내 실현될수 있었던 거지

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남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관한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을 받드시고 동포애의 정이 어린 구호의 손길이 이땅에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고를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한데서 떨고 있을 수재민들에게 동포애의 정이 어린 구원의 손길이 가닿게 하는건 **김일성**주석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구호물자를 꼭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질과 수량, 실현방도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양정아 : 바로 그래서 이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구호제의가 세상에 발표되게 된거잖아요.

오 일 : 네, 그렇죠. 쌀 5만석, 직물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과 다량의 의약품을 보내주겠다는 이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결정이 **에 발표됐었어요. 그때부터 구호조치가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양정아 : 북의 구호제의가 발표되자 당국자들은 완전히 넋을 잃지 않았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그 당시 당국자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였다고 할까요. 구호제의를 받아들이자니 북의 영향력이 두려웠고 물리치자니 내외여론이 무서웠던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북의 구호제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호물자전달을 무산시키려고 했으니까요.

양정아 : 그런 입장에서 나온게 바로 9월중 일괄인도조건 아니였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북에 무슨 예비물자가 그렇게 많겠느냐 부득불 외국에서 수입할텐데 그러노라면 9월중 일괄수송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구실로 구호물자를 아예 미리 막아버리면 된다는게 당국자들의 흑심이였던 거예요. 당국자들의 그런 속기도는 구제물자인도문제,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는 남북 적십자실무접촉과정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양정아 : 그 회담에서 기본 쟁점으로 됐던 것이 구호물자 수송수단하고 인도인수장소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북측은 대형트럭, 필요하면 비행기까지 동원하고 배로는 속초, 부산, 인천항까지 가고 트럭으로는 수재민이 가장 많은 서울까지 갈 걸 제기했는데 남측이 처음엔 배수송로만 하되 인천항 하나만 열어놓겠다고 고집했었어요.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의 그런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성실하고 유연한 자세에서 참을성있게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건 오로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의 사랑이 한핏줄을 나눈 동포인 남녘의 수재민들에게 하루빨리 와닿게 하려는 뜨거운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였는데요. 북측의 고결한 인도주의적 처사와 사리정연한 논리앞에 남측은 드디어 손을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해 인천항과 함께 동해 속초항까지해서 파주군 봉래면, 대동면까지 문을 여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던거죠.

양정아 : 그렇게돼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의 구호물자가 남으로 실려오게 된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물자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수송하는데 기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노고에 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래요.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사업을 진두지휘하셨어요. 장군님께서는 우선 수재물자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쌀도 최고미로 정미하게 하시고 시멘트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 포장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약품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쌀의 질이 얼마나 좋았던지 남측의 한 품질감독원까지도 5년묶은 ****를 가진 쌀의 질이 대단히 높다면서 북의 구호조치가 진실임을 실감있게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재물자를 지정된 장소에 제때 도착하도록 하는데도 장군님의 손길이 뜨겁게 미쳤는데요. 그분의 영도밑에 우수한 인원들과 성능높은 기계들로 강력한 물자수송대가 조직돼서 수재물자를 사소한 차질도 없이 남측으로 인도하게 됐다고 해요.

양정아 : 그때 북에서 제공한 수재민구호물자는 달러로 환산하면 1,800만달러인데요. 정말 무심히 대할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 일 : 그렇죠.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상 처음있은 거액의 양이였는데요. 그때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이 고작 2만달러를 던져주었고 일본이 큰 맘먹고 낸돈이 10만달러였다는 걸 감안할때 말입니다. 북에서 보낸 물자가 참으로 막대한 양이라는건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담긴 동포애가 또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운 겁니까.

양정아 : 17년전에 있었던 이남 수재민들에 대한 북의 구제물자제공, 이건 분단사상 참으로 의미깊은 거사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의의에 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오 일 : 북에서 취한 구호조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열렬한 동포애와 세심한 은정에 의해 실현될수 있었던 그 구호조치는 얼어붙었던 분단의 장벽에 파열구를 낸 쾌거였고 우리 이남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힘이 움트게 한 그런 실화였죠. 그리고 민족의 행각을 이을수 있는 가교로 됐습니다.

양정아 : 남북관계개선에서도 전환의 계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그를 계기로 남북경제회담의 길이 새롭게 열렸고 그 이듬해 5월엔 오랫동안 중단됐던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됐는데요. 이건 수재로 고통받는 이남수재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남북간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결과라고 해야겠죠.

양정아 :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양정아 : 17년전 그때도 그랬고 오늘까지 누가 진심으로 겨레를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 애쓰는지를 너무도 똑똑히 보아온 우리 민중입니다. 흘러간 감격의 그 나날에 다시 돌이켜본 지금 여러분께서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받들고 6.15남북공동선언실천투쟁에 더욱 과감하리라 결심 굳히고 계실 겁니다.



특집

미국의 보복작전과 일본의 재침책동



미국의 보복작전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적보복작전이 실행단계에서 벌어 지고 있다.

9월 26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백악관에서 전시내각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공격개시시기와 주타격목표,공격범위,라덴체포작전 등 보복공격전술을 총 점검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5일 부쉬는 작전참가를 위해 중동지역 등에로 출동한 미군무력의 전진배치정형과 보복작전계획을 개괄한 편지를 미국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또한 이날 미국방성은 이번 작전명칭을 ≪무한한 정의의 작전≫으로부터 ≪항구적인 자유의 작전≫으로 바꾸었으며 1,900여명의 예비역을 추가동원하여 총 5만명의 예비역동원을 끝내고 군인들의 제대를 일시 중단시켰다.

외신들은 미군에 전시최고경계령인 ≪델타≫가 내려 진 가운데 이미 3개 항공모함전단의 전진배치를 포함한 타격력량의 아프가니스탄에로의 접근배치가 완료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9월 27일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보복작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깜빠니야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언론계는 람스펠드의 이와 같은 발언과 때를 같이하여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미국민의 78프로가 사건의 장본인이 밝혀 질 때까지 미국이 군사행동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도이췰란드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지금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언제 진행되겠는가를 긴장하게 주시하고 있는 속에 전쟁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심리전으로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8일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은 수일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영군의 특수작전이 개시된데 대해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특수작전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공격의 서막이라고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전하였다.

미국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로스안젤스 타임스≫,미국 에이비씨텔레비죤방송 등은 9월 11일의 공격사건발생직후 3~5명으로 구성된 미영군 특수무력 소부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하여 라덴의 행처를 추적하고 있는것과 함께 미제82,제101공수사단 등 특수부대들이 계속 아프가니스탄주변의 기지들에 도착하여 아프가니스탄령내에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방송들은 특수작전의 목적은 라덴과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리반세력의 동요를 유도하며 일단 유사시 공습과 선전삐라살포 등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는데 있다고 하였다.

9월 29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주례라지오방송연설에서 ≪현재 반



테로전쟁이 다방면에 걸쳐 진행중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사적수단뿐아니라 외교적,경제적,법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부쉬는 경제적봉쇄조치로서 라덴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단체들의 미국내자산을 동결시킬것을 지시하였으며 미행정부는 테로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막기 위한 결의초안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군사적보복작전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외교전이 본격화되였으며 이에 각 나라들은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정보자료교환,인도주의물자수송 등 미국과의 협력문제와 관련한 5개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 나라 국방상은 ≪아프가니스탄에 로씨야군인들을 파견하는것은 미국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한것과 같은것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군대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중국의 주용기총리는 도이췰란드수상 슈뢰데르와의 전화대화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공인된 국제법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미국신문 ≪헤랄드 트리뷴≫은 ≪워싱톤은 로씨야와 중국으로부터 큰 협력은 기대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자기의 전통적인 동맹자들로부터나 협력을 기대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9월 28일 도이췰란드련방군의 한 고위인물은 자기 나라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프랑스수상 죠스뺑은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편에 서 있지만 테로와 이슬람교도를 같은것으로 보는것을 반대하며 미국의 보복작전이 서방세계와 이슬람교세계간의 대결로 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이슬람교세계에서는 미국의 보복작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9월 27일까지 련 5일째 수천명의 군중이 미국대사관앞에서 항의시위를 벌렸다.이 나라 32개 이슬람교조직들이 반미성전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9월 28일 현재 330명의 지원병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탄원하여 갔다 한다.

타이신문 ≪더 네이션≫에 의하면 9월 26일 이 나라의 이슬람교단체들은 수상에게 공개편지를 제출하여 미국의 보복작전에 군대를 파견하지 말며 군사기지리용도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9월 28일 말레이시아수상 마하디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어느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테로문제해결을 위한 유엔특별회의소집을 제안하였다.

이슬람교국가회의기구는 미국의 군사적공격과 관련하여 기구성원국 외무상들의 비상회의를 10월 9일에 까타르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당국에 대항하는 주요반란세력인 북부동맹에 지원을 주기 위한 비밀작전에 착수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배적지위에서 타리반세력을 밀어 내기 위한 부쉬행정부의 계획의 관건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하였다.신문은 또한 대통령 부쉬가 북부동맹을 포함한 모든 반타리반세력들의 단합을 위한 작전계획안을 승인한것으로 전해 졌다고 보도하였다.

9월 26일 파키스탄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인민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행동에 가담할수 없다≫고 성명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정부 국방성 대변인은 까타르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적과 그의 동맹자들에게 대응타격을 가할것이며 그들을 가만 두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타리반당국의 한 고위관리는 영국신문 ≪썬데이 미러≫와의 회견에서 타리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다.

미국의 공격작전에 대처하여 최근 타리반당국은 정부의 사업체계를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안전문제들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가졌으며 군최고사령부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역에로 이동시키고 요충지마다에 ≪스팅거≫미싸일 등으로 무장한 정예군병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얼마전 파키스탄과의 국경지역에서 수천명의 병력과 땅크와 포,미싸일 등 중무기들이 동원된 가운데 타리반부대들의 군사연습이 여러 날동안 벌어 졌다 한다.

한편 라덴은 파키스탄의 한 신문과의 서면회견에서 자기가 부잡히거나 죽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슬람교의 적들을 상대로 한 성전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덴의 조직인 ≪알 카에다≫는 파키스탄언론계에 성명을 내여 아프가니스탄이 공격을 받는 경우 전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인들과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습격하여 보복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방어를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9월 30일 미사법장관은 한 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미군이 보복공격을 가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본토에 대한 2차공격에 대처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 지고 있다 한다.

미보건후생장관은 미국정부가 생물무기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신문 ≪함샤흐리≫는 영국언론계에서 미국 다음에 영국이 공격목표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론의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 수도 런던에서 방독용마스크가격이 엄청나게 뛰여 오르고 관광객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영국 비비씨방송이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 유럽문제담당상은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자인하였다 한다.

알려 진데 의하면 10월 중순경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눈이 오기 시작하며 동시에 이슬람교나라들의 라마단단식월간이 시작된다.

외신들은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수일내에 단행될것이며 첫 타격은 특수부대들의 정보에 기초하여 이 나라 수도 카불과 타리반의 군사거점인 칸다하르,잘랄라바드에 있는 비행장과 군사시설들에 대한 비행대의 공습과 순항미싸일사격으로 진행될것이라고 하였다.

일본 ≪산께이신붕≫ 10월 1일부는 미국이 9월 30일까지 타리반에 대한 한정적인 공습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라고 하면서 2만 8,000명의 병력과 300대이상의 군용기가 림전태세에 들어 갔으며 아프가니스탄주변의 12개 기지가 공격거점으로 리용될 전망이라고 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외교관들과 군사가들,정치분석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깜빠니야를 시작함에 있어서 부쉬가 커다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그 도전들에는 또다시 있을수 있는 미국에 대한 공격과 군사작전이 벌어 지는 경우에 생길수 있는 미군의 인적피해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미군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평양 10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8일 새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수도 카불에 비행대의 공습과 순항미싸일발사에 의한 첫 타격이 가해 졌으며 뒤따라 타리반의 군사거점인 칸다하르와 잘랄라바드, 헤라트 등 도시들도 공습을 받았다.

얼마후 카불과 칸다하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강력한 공습이 여러차례 있었다.

외신들은 공습직후 수도 카불에서 강력한 폭발과 진동이 있었으며 섬광이 번쩍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타래쳐 올랐다고 전하였다.

동시에 도시의 많은 구역들에서 대공방어수단들과 자동보총의 사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였다.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은 미국방성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타리반의 대공방어무력,지휘쎈터,비행장들,주요하부구조대상들에 타격이 가해 지고 있다고 하면서 1단계작전에서는 점발타격뿐아니라 주단식폭격도 진행된다고 하였다.

미국텔레비죤방송들은 카불의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타리반의 반항공무력이 도시의 상공에 있는 비행기들에 대응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마이어즈는 미국방성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단계작전에 아프가니스탄주변지역의 공군지상기지들과 미항공모함들에서 리륙한 15대의 중폭격기들과 25대의 다목적전투기들이 동원되였으며 전투함선과 잠수함들에서 발사된 50기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들이 사용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행기들이 목표들에 250키로그람짜리 고정밀레이자유도폭탄을 투하하였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카불에서 타리반국방성청사와 비행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였으며 칸다하르에서도 비행장과 일부 라지오방송망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한다.

아프가니스탄이슬람교통신은 수도 카불에서 적어도 20명이 죽었다고 보도하였다.

공습을 받은 도시들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여러 주민구역들이 황폐화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공습이 시작된 직후에 한 전국에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깜빠니야가 개시되였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제 타리반은 비싼 대가를 치를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이와 함께 그는 세계 주요 나라와 유관국 수반들에게 전화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통지하였다.

또한 영국수상 블래어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영국군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합류하여 해군잠수함들로부터 목표물들에 미싸일들을 발사하였다는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이번 작전에 영국무력을 참가시킬데 대한 미국의 요청을 승인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반타리반세력인 북부동맹군은 공격에로 넘어 가 이 나라 중부의 고르주에서 타리반이 장악하고 있던 11개의 주민지역을 타환하고 주소재지에로 진격하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개시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당국은 미국의 공격을 테로행위로 규탄하면서 타리반은 정의의 전쟁에 준비되여 있으며 라덴을 절대로 미국에 넘겨 주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파키스탄주재 타리반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은 횡포무도하게도 힘에 의거하고 있다≫고 단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카불에서 죽어 가고 있다.미국은 이에 책임이 있다.우리는 숨이 질 때까지 싸울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타리반정부 국방성 부상은 까타르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공습에 참가한 미군비행기 한대가 타리반의 반항공무력에 의해 격추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타리반당국은 미국이 1,000여명의 지상군을 우즈베끼스딴에 증강전개한것과 관련하여 우즈베끼스딴과의 국경지역에 8,000명의 민병대를 추가배치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은 라덴이 ≪미국인들은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할것≫이라고 한데 대해 전하였다.

라덴은 자기자신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교에 대한 전쟁≫으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안전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안전과 안정을 누리지 못할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밝힌데 의하면 미련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등은 국회상하량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을 실시하는 경우 100프로의 확률로 미국에 대한 추가공격이 있을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다.

부쉬는 ≪지금 미국인의 태반이 공포를 품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미국의 사법,정보기관들이 지난번 공격사건과 같은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각 주방위군에 전국의 비행장들을 순찰할데 대한 대통령 명령이 하달되였으며 국무성청사밖에 바리케드들이 설치되고 있다.

뉴욕시가 사상처음으로 최고비상경계상태에 들어 가 시당국이 사람들의 통행과 자동차들의 시내출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로스안젤스,쌘프랜씨스코,볼티모어 등 도시들에서도 폭탄과 생화학공격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다.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기자회견에서 첫번째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의 반항공시설들과 비행기들뿐아니라 라덴과 같은 개별적인 사람들을 겨눈것이라고 하면서 ≪작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라덴의 기지를 제거하며 타리반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작전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전하였다.

보복작전을 구실로 미군무력증강책동 강화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미국이 습격사건과 관련한 보복공격을 위해 미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중동지역에 투입함에 따라 생겨 난 조선반도전력공백을 막는다는 구실로 미공군전투무력을 남조선에 추가배치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군사당국은 2일 그 무슨 ≪보도문≫이라는데서 항공모함 재배치에 따르는 조선반도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공군전투무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추가로 배치될 미공군능력은 현재 수준의 ≪련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조선≪국방부≫는 이와 함께 일본을 떠난 ≪키티호크≫항공모함가운데서 일부 비행단과 해상전력이 계속 서태평양지역에 남아 남조선미국≪련합방위태세≫를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테로보복전을 구실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증강하고 서태평양지역의 일부 무력을 남조선미국≪련합방위태세≫유지를 위해 남겨 놓으려고 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기어이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더우기 남조선군사당국이 미군의 무력증강책동에 짝자꿍이를 하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열기에 칼질을 하는 반민족적행위이고 6.15공동선언리행에 제동을 거는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미국의 군사적공격개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

(평양 10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대규모 테로공격에 대한 군사적보복작전을 개시한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대미테로공격사건이래 ≪군사적보복≫을 선포하고 그 준비를 각방으로 다그쳐 온 미국은 드디여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하여 세계는 또 한차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시종일관 테로를 반대하여 왔다.

우리가 테로를 반대하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테로와의 투쟁방법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여야 하며 그에 배치되게 무고한 주민들이 살해되거나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번 행동이 세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을수 있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것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간주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테로를 반대하여 자기 할바를 다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우리 나라를 의연히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 놓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발전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온데 대해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해 나갈것이다.

한반도전력공백을 막는다는 구실하에 미공군전력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기로

구국의 소리 10월 4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폭격사건과 관련한 보복공격을 위해 미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중동지역에 파견함에 따라 생겨난 한반도전력공백을 막는다는 구실로 미공군전투무력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한미군당국은 지난 2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항모 재배치에 따른 한반도전력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공군전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가로 배치될 미공군력은 현재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와함께 일본을 떠난 ≪키티호크≫항공모함연단가운데서 일부 비행단과 해상전력이 계속 서태평양지역에 남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백을 구실로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서태평양지역에 공군무력을 한미연합방위태세 **에 남겨놓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기어이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더욱이 군당국이 주한미군의 무력증강책동에 짝자꿍이 하는 것은 7천만겨레의 통일열기에 칼질을 하는 반통일적 행위이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노골적인 ***이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의 이러한 전력증강책동으로 인해 지금 한반도정세는 매우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미군무력의 이동과 한반도에 공군전력을 추가배치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미군당국의 움직임은 철두철미 침략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반동보수세력들은 미군전력을 다음 작전대상으로 한반도로 확장하고 실제보다 140배나 많은 무력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주한미군무력을 어떤 경우에도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유럽지역의 미군무력을 이곳에 집중배치해서 전력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것은 철저히 침략전쟁각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호전광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새로운 기동작전기재들과 최신무장장비들을 배비하면서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들의 무력증강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린다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진전시킬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때문이였습니다.

미국 호전계층과 군당국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정세를 직시하고 이에 역행하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해야합니다. 만약 미국과 군당국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군사행동에 매달린다면 침략자, 전쟁광신자로써의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재침은 파멸의 길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은 일본반동들이 지난 시기의 패망의 수치스러운 교훈을 잊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살적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전쟁을 위한 길을 열어 놓으려고 계획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실례로 국회의원이란 자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력사외곡책동,대형운반로케트시험발사,≪방위계획대강≫놀음 등을 들었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은 최근 미국에서 있은 습격사건을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 들기 위한 절호의 계기로 리용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미국의 군사작전시 ≪자위대≫가 미군에 ≪병참지원≫을 줄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특히 지금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대규모 테로대처≫를 운운하며 조선반도와 면한 일본의 서부지역에 무력을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화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오늘 일본과 경제적협조를 발전시켜 나갈것을 바라는 나라는 있어도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되는것을 환영하는 나라는 더구나 없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은 곧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전쟁히스테리적광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자위대≫ 해외합동훈련은 용납될수 없는 엄중한 사태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의 륙상,해상 및 항공≪자위대≫가 해외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려는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인디아양과 파키스탄에서 ≪자위대≫합동군사훈련을 벌림으로써 ≪자위대≫의 륙해공군무력의 동시해외진출과 종합군사연습의 전례를 만들어 놓으며 일본도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능히 벌릴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것을 세계에 시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법률적제한을 뛰여 넘어 그리고 전례를 깨고 ≪자위대≫륙해공군무력을 동시에 해외에 멀리 내보내여 합동군사훈련을 벌리게 하려는것은 매우 위험한 성격을 띠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그들은 전후 반세기가 지나고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더욱더 어벌이 커져서 해외팽창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며 지랄발광하고 있다.

세계는 아직도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행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그 본성으로 보나 기질로 보나 임의의 시각에 강도적인 구실밑에 침략의 포성을 울릴수 있는 전쟁세력이다.

일본≪자위대≫륙해공군무력이 경외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는것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으며 그 범죄성과 위험성을 감출수 없다.

핵전쟁위험을 몰아 오는 ≪비핵3원칙≫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7일부는 일본이 ≪비핵3원칙≫을 방패로 하여 ≪핵초대국≫으로 등장할 토대를 닦아 놓은데 대하여 폭로하는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이전 일본총리 사또가 1967년에 정부방침으로 내놓은 ≪비핵3원칙≫은 사실상 일본인민들의 반핵감정을 마비시키고 일본의 핵기지화와 핵무장화를 다그치는것을 가리우기 위한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비핵3원칙≫을 악용한 범죄적후과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일본을 미국의 핵기지로 전변시킨것이다.

일본정부의 묵인과 비호밑에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함선과 비행기들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일본에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지어 미국의 핵잠수함이 검열이나 승인은 커녕 사전통고없이 일본항구에 들어 와도 일본정부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핵3원칙≫의 간판밑에서 일본이 핵무장화의 길을 열어 놓고 그를 다그친것이다.

일본정부는 핵무장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적극 내밀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100톤의 플루토니움을 확보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로씨야의 핵탄두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량이다.

일본의 핵무기제조기술과 운반수단개발기술은 이미 세계 1류급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대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일본반동들은 핵무기를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 핵무기사용금지결의를 토의할 때마다 일본이 앞장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것도 이런 속심을 품고 있기때문이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또가 내놓은 기만적인 ≪비핵3원칙≫의 병풍뒤에서 핵이발을 벼리면서 히로시마의 재난을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들씌우려 한다면 온 일본땅이 그보다 더 큰 참화를 뒤집어 쓰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험천만한 일본의 무력증강책동

구국의 소리 10월 1~3일

일본이 지금 위험한 죽음의 길로 정신없이 내닫고 있습니다. 화약을 가득 실은 마차를 불길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본의 무력증강책동≫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속에서 로켓발사시험을진행해 내외의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의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그 성공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도 그것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것인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용할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켓으로써 우주개발보다 군사적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일본은 이 로켓이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일본 방위청장관은 그것이 이북의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로켓발사시험이 명백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특히는 이북을 겨냥한 군사로켓시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써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저들의 헌법에까지 쪼아박았지만 그들은 ≪자위대≫라는 명칭을 단 완전무장한 상비군을 버젓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입니다. 일본은 이 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미국과 공조하여 재무장은 물론 줄곧 무력증강의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군사대국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연간 군비지출에서 500여억달러로 미국 다음가는 제2위에 있고 나토의 비해서 군비는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한편 일본의 군력증강속도는 1980년부터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자위대 무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대로 돼 있습니다. 군비가 늘어나고 군력이 증강됨에 따라 일본자위대의 기지들과 시설들도 늘어나 지금 2,8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에 비해 기지수가 근 400개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은 현존군수사업시설만 제대로 돌려도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를 전보다 4내지 5배 늘릴수 있고 연간 탱크는 500대, 군용항공기는 1,500대, 전투함정은 3천톤급 600척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은 자위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장비의 질적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증강에서 특히 해상자위대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해양전략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해상무력을 주되는 군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해상자위대 무력은 아시아에서 최강으로 부상되고 있고 일본이 보유한 함정수는 현재 미국이 태평양에 배비한 함정수와 거의 같은데 구축함 60여척과 잠수함 15척을 포함하여 165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도 새로운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1990년도에 미국이 일본 본토에 배비한 것보다 더 많은 180여대의 ≪에프-15≫전투폭격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조기공중경보기와 비투시조기경보기, ≪피쓰리-씨≫초계기, ≪에프-15≫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배층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01~ 2005년≫, 현 ≪중기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 최신형 이지스함, 패트리어트개량형인 ≪피에이-씨3≫미사일, 항공모함, 대형장거리수송기, 다음세대 최기종의 생산도입배비와 함께 지금 예비 *****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무력의 보유를 제한한 헌법을 무시하고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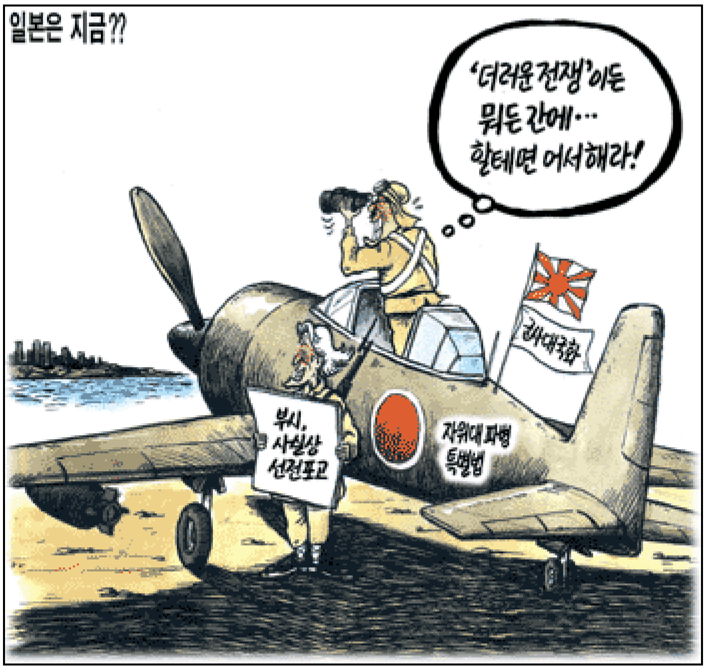
특히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에서 간과할수 없는 것은 핵무장화책동입니다. 일본이 지금 적출한 플루토늄만으로도 나가사키형 원자탄 3,000개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것으로도 부족해 해외로부터 계속 플루토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장약만 넣으면 되는 수많은 핵탄두들을 생산했으며 그 운반수단까지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진행한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발사시험도 사실은 유사시에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로켓발사를 계기로 ≪전수방위≫라는 간판을 완전히 버리고 해외팽창의 길로 노골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 지배층의 침략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한반도 재침은 눈앞에 박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위험천만한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위험천만한 무력증강책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지난 시기 제가 지른 전쟁의 불길에 제가 망했던 걸 잊지말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겁니다.



유엔총회 제56차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9월 26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에서 기구사업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토의시 조선대표가 연설하였다.

대표는 연설에서 새 천년기에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유엔의 중심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 천년기에 들어 선 오늘 자주권의 개념을 허물려는 주장들과 ≪인도주의개입≫시도들은 인류의 자주적발전에 주되는 도전으로 되고 있다.

국가자주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들이 로골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분쟁들은 외부세력의 간섭으로 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유엔의 근본목적으로,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주권평등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회의에서는 이 원칙이 재확인되였다.

유엔은 큰 나라들이 작고 약한 나라들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분쟁문제들을 지배주의 실현목적에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인류의 평화위업을 실현하자면 핵군축이 실현되여야 한다.

핵무기소유국들은 핵무기철페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실천적조치를 취하는것으로써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한 신뢰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자면 유엔활동에서 2중기준적용이 철저히 배격되고 정의와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오늘 국제관계에서 큰 나라들의 강권행위는 묵인되고 있지만 작은 나라들의 자위적조치는 제재와 압력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성과 2중기준을 없애자면 유엔의 주도적역할,특히 총회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총회는 유엔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다른 기관들에서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결의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것이다.이 문제를 유엔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해당한 권고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유엔활동을 민주화하자면 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여야 한다.

안전보장리사회개혁에서는 우선 비교적 쉽게 합의 볼수 있는 비상임리사국확대문제부터 결정하여 리사회개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회의 공동의장성명이 발표되고 유엔총회결의가 일치합의로 채택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조선의 북과 남은 북남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려는 목적에서 올해에도 안건 ≪조선반도의 평화,안전,통일≫을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 기회에 외부의 간섭이 없이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해 주고 있는 성원국들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없는 세상을≫

765개 단체, 명동에서 종각까지 반전평화 대행진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공격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도 늘고 있다. 9일엔 미군의 공습으로 아프간에서 활동 중이던 유엔 관련 단체 직원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일부 파키스탄 언론들은 민간인 희생자가 30여명 이상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라면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테러지원국가에로 전쟁을 확전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국내 765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이름으로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를 갖고, 그중 선언 참석자 50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종각까지 평화대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후 아시아의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반전평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오전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반전평화 시국대선언≫대회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회원 신주희씨는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평화를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등에는 갓 1돌을 지난 듯한 아이가 업혀 있었고, 4살 정도 된 여자 아이가 연단에 따라나와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각 분야별 대표들의 시국선언과 시국선언문 낭독에 이어 그는 즉석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연단에 올랐으며, 대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평화단체, 시민단체, 민중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가단체들은 10월 10일 오전 10시 20분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4층 대강당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중단,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열고 이어 종각까지 평화대행진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553개 단체 명의로 반전평화 토론회 및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반전,평화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문정현신부는 ≪미국은 전쟁을 선택했지만,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인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세계를 또 다시 폭력과 죽음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할 이번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신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염원을 짓밟는 테러 행위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증거에 기초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 보복을 시작해버렸으며, 전쟁 협력이 아니면 테러 협력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신부는 이어 ≪우리는 모든 테러와 전쟁에 강력히 반대하고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 보복에도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자신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에서 반미감정을 키워왔으며 결국 테러 집단에게 빌미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신부는 또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며, 테러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군사 적대를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라면서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시20분부터 시작한 대회에서는 오종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공동대표,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각 분야별 대표들이 나와서 시국발언을 했다.

한편 9일 뉴욕과 런던에서는 아프간 공격 이후 처음으로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천명이 미군의 아프간 공격을 비난하는 반미반전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이런 세계 각국의 반전평화 요구가 미국의 보복전쟁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대표의 시국발언 요지

≪교육-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미국은 테러로 숨진 수많은 미 국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움과 분노에 의한 전쟁과 테러에 의해 더 이상 희생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계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전쟁지원을 하려는 것에도 반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이성을 잃고 전쟁에 뛰어드는 세계지도자들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은 결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는 용기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해설가도 미국의 위세에 눈치를 보고 있는 때에 우리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메신저로 과감히 나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길이 존경과 찬사를 받는 진정한 평화주의자로 영원히 기억되길 기원한다.

≪노동-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노동자들은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생명평화애호세력들에게 호소한다. 민중의 삶을 수탈하고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세계를 미국 중심의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세계로 재편하려는 전쟁폭력의 흐름에 맞서서 생명, 평화,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자. 이 거대한 연대와 투쟁의 선봉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농민-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화 압력으로 제3세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더욱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편 보복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중이 희생되고 있다. 9.11 테러를 핑계로 전 세계적인 무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MD구축 강행, 자국의 경제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미국의 전쟁놀음을 반대한다.

≪문화-현기영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번 테러사건을 두고 미국의 최첨단 정보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력의 실패'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이슬람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고 있다지만 정작 또 다른 테러국인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미국의 보복전쟁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의 테러세력까지도 타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지구라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인들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 반전 · 반테러 운동에 나서야 한다.

≪빈민-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군사보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또한 전쟁을 통한 한풀이식 대응방법이란 측면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의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폭력과 더불어 또 다시 죄 없는 민중들의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번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3세계 나라들에 대한 패권주의와 경제적인 침탈이 그 배경과 원인임을 지적을 하고 있다.

≪여성-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우리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전쟁과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전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쟁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히며,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폭력과 보복 전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촉구한다.

≪종교-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 테러에 대하여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초반기의 최초의 전쟁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것은 독일의 신나치 운동과 다름없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미국이 테러에 대하여 군사적인 보복을 감행한다면 또 다른 피의 테러를 부르게 될 것이 우려되고 이는 끝없는 테러와 피의 응징의 악순환의 시작이 될 조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제발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통일- 오종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조국통일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대대적인 아프간 침공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과 피를 부를 뿐이다.

≪평화-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공동대표≫

이 지구상에 매일 전쟁을 준비하고 죽임의 도구를 생산함으로 자신의 안일과 부를 축적하는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일, 그것은 이제 상식이 아닌가? 지금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공포에 기초한 20세기적 세계경영을 21세기에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나설 것인지 하는 선택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세계를 향해 평화쪽지를 날리자! 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자고!

≪학술-신광영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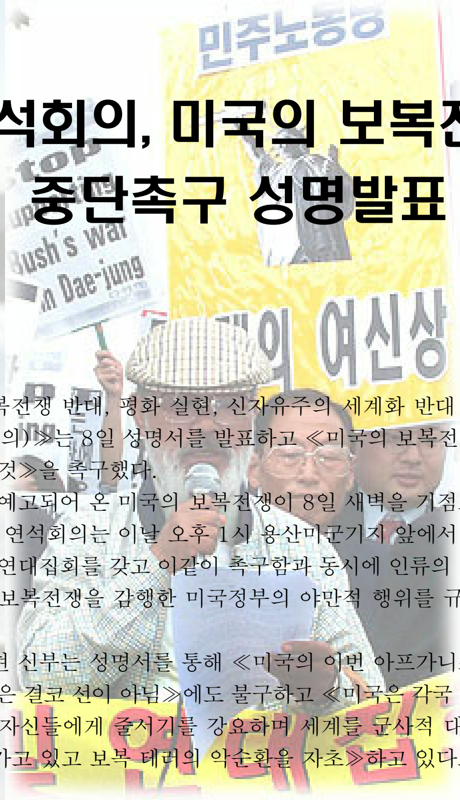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무고한 인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천명하는 동시에 테러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전쟁을 벌이는 무모하고 성찰적이지 못한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도 또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또한 테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뉴밀레니움이 몇몇 강대국의 세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세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

≪환경-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전쟁은 생명의 존엄과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이다.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 지원을 반대한다.

2001/10/09

연석회의,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촉구 성명발표



≪보복전쟁 반대, 평화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석회의(연석회의)≫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예고되어 온 미국의 보복전쟁이 8일 새벽을 기점으로 현실화되자,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과 연대집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함과 동시에 인류의 염원을 저버리고 보복전쟁을 감행한 미국정부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정현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결코 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각국 정부를 위협하여 자신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며 세계를 군사적 대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보복 테러의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규탄집회에는 연석회의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빈련, 사회당, 녹색연합, 자통협 등이 참여해 미국의 보복전쟁 감행과 한국정부의 보복전쟁 지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후 보복전쟁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단병호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허영구 수석부위원장도 ≪결의 발언≫을 통해 ≪이 투쟁에 노동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해 갈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시발로 미국의 보복전쟁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에 의하면 ▲≪반전평화 한일공동기자회견≫(10월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10월 10일 오전 10시, 명동카톨릭 회관) ▲4대종단 ≪전쟁반대 평화실현 기도회≫(10월 11일 오후 1시, 명동성당 들머리) ▲≪미군없는 평화세상 만들기 주한미군 Expo≫(10월 17일~19일), ▲범국민대회(10월 20일 오후 3시, 전국동시다발) ▲범국민적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연석회의는 부시방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 26일 부시방한 취소를 계기로 전환된 기구이다.

연석회의 참가 단체는 매향리범대위, 미군기지공대위,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MD저지공대위, 전민특위, 통일연대,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 8개 단체이다.

한편, 미국의 보복전쟁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자통협의 고영대 집행위원장은 미 테러사건으로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지만 남북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에 앞서 홍순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오전 보복전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보복전쟁이 남북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한.일 347개 단체, ≪전쟁반대≫에 한 목소리

- 서울.도쿄 동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 한국과 일본의 347개 사회단체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9일 오전 11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서는 11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민중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주노총, 녹색연합 등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쟁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11일 이후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테러가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8일 새벽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시작하고 한일 양국정부는 전쟁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국 정부의 전쟁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손혁재 사무처장은 특히 일본에서 신사참배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우익정권으로 탄생한 고이즈미 정부는 테러사태 이후 적극적인 전쟁협력을 표명하면서 군사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숙(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수녀는 ≪미국의 보복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성명에 참여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종류의 테러와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미국정부가 이번 테러 사태를 전쟁행위(Acts of War)로 규정하고 군사적 보복의 권리를 주장하며 실행한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영숙 수녀는 테러를 일으킨 집단이나 개인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협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보복전쟁은 테러사건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그동안 제3세계 나라들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등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며, 미국식 세계화를 강요해온 자신의 일방적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테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공동성명을 갖게 된 것도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영숙 수녀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보복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간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면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후 내일(10일) 오전 10시에는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반전평화 시국대선언 및 평화대행진≫을 가질 예정이고, 15일로 예정된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방한에 대한 항의운동과 22일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또한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공동행동은 한국과 일본의 단체들과 함께 하기로 합의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홍콩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날 공동성명은 한국,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단일사안에 대해 공동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PARC (Pacific-Asia Resource Center: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일본내 28개 단체가 함께 하였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시민단체들 ≪더 큰 폭력 인류 불행케 할 것≫

8일 새벽 1시 30분(한국시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면서 그 동안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던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긴급기자회견과 연대회의를 갖는 등 발빠른 ≪반전 평화촉구≫ 움직임에 나섰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와 매향리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 통일연대 등 8개 연대기구 소속 대표자와 회원 100여 명은 8일 낮 1시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및 연대집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미국의 보복전쟁이 테러의 근절은커녕 더 큰 폭력과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들의 과오를 살피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폭력만을 앞세우는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이 온갖 첨단무기들을 동원하여 걸프전쟁과 유고전쟁에서 자행했던 어린이와 양민에 대한 학살이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에서도 그대로 재연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 40분께엔 사회당 이자영 부대변인과 용진희(이하 당원), 노희창, 손지훈 씨 등 6명의 당원이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키 위해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면담신청을 하다가 전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도 긴급성명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응징 · 처벌,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등은 그 동안 미국이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 의례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었다면서 ≪범죄자들의 은신처와 그 배후자들의 근거지를 제거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이번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침략행위가 자신들이 키워온 범죄자 노리에가를 인권유린, 마약장사 혐의로 잡아들인다며, 수천명의 파나마 민중들을 살해했던 1989년의 파나마 침공과 너무나 유사하다"며 ≪당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파나마 민중들의 참상은 전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테러리스트 아닌 여성과 어린이들

오마이뉴스와 함께 ≪테러 및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쪽지 이어날리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주한미대사관 앞 1인시위와 함께 8일 저녁 40여개 여성단체들의 긴급 연대회의를 갖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현숙 상임대표는 낮 1께부터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보복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김 대표는 ≪현대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였음이 각종 보고서를 드러난 바 있다≫면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폭행과 테러, 성추행 등이 재연될 것이 뻔한데도 더 끔찍한 폭력을 불러올 전쟁에 집착하는 미국의 반성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회로 다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전쟁에 우리 정부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경우 ≪전쟁나면 우리 아들 죽는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으로 뜯어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쟁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반전평화 한일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0일 오전 10시부터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행진≫, 11일에는 ≪4대종단 전쟁반대 평화실현 기도회≫, 17일부터 3일간 ≪미군없는 평화세상 만들기, 주한미군 Expo≫을 개최하는 데 이어 20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보복전쟁 반대 평화실현 ·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노순택 기자 nohst@ohmynews.com

서울대생 150여명, ≪반전집회≫

5일 아크로에서는 ≪미국의 보복공격 반대와 전쟁지원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약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는 ≪미국의 보복전쟁은 테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미국을 빨판삼아 들러붙는 김대중정권의 전쟁지원 결정에 반대한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학생들은 반전구호를 적인 리본을 아크로에 있는 나무에 매달고, ≪No War, Yes Peace≫라고는 글이 적힌 플랭카드에 손도장을 찍는 등의 행사를 한 뒤, 지하철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에서 전쟁반대선전활동을 하였다.

2001-10-06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테러행위이자 살인행위이다.

1.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미국과 영국군이 미사일과 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아프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테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강대국들이 아프간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공격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2. 9월 11일 미국 대참사 이후 미국은 빈라덴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그가 미국 대참사에 개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테러 응징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3. 이는 경찰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강대국들의 집단적 힘을 이용해 약소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명백한 테러행위이다. 또한 미국이 힘의 우위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패권주의에 입각한 깡패행위이며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적 행동이다. 우리는 이번 공격을 계기로 벌어질 수 있는 제2, 제3의 대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임을 미리 밝혀둔다.

4. 또한, 미국의 비이성적인 군사행동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그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우리는 세계평화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우리정부의 지원에 대해 반대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0월 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미국은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1.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고 만 여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는 폭력과 테러의 야만성을 보았고, 대화와 평화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테러는 정당화 될수 없으며,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한 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전세계 양심있는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믿음이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21세기의 결심이다.

2.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테러범이 밝혀지고 국제법에 따라 응당한 죄과를 치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인류의 이런 바램과는 다르게 미국은 불확실한 테러범 라덴을 인수하지 않는 다고 아프카니스탄에 8일 새벽 3차례에 걸친 미사일 공격을 퍼붙는 또다른 테러 보복전쟁을 시작했다.

3. 미국에 가해진 테러가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다른 나라를 수차례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인류에게 남긴 ≪뿌리깊은 반미감정≫이었다는 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8일 새벽 3차례에 걸친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전인류의 바램은 오직 평화와 번영이지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이 아니다. 보복전쟁은 또 다른 테러를 부를 뿐이며 인류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4.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전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 악은 또다른 악을 부르고, 테러는 또다른 테러를 부를 뿐이다. 악으로 악을 잠재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더 흉직한 악에 직면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테러를 보복전쟁으로 막아보겠다는 미친생각은 수십배의 희생자를 낳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5. 미국이 보복전쟁을 당장 중단하지 않지다면 우리로서는 미국이 테러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군수 자본가의 배를 불리고, 자국내 전쟁광들의 광끼를 부추겨 정치적 인기를 누려보겠다는 음모로 밖에는 볼수 없다. 미국은 당장 일체의 전쟁놀음을 중단하라.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범 빈 라덴이 범인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으며, 설사 라덴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무수한 양민의 희생을 야기하는 보복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류사적 범죄이다.

2001년 10월 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김대중 정부는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논평

≪항구적 자유≫ 작전은 ≪항구적 테러≫를 유발하고 결국 ≪항구적 전쟁≫으로 번질것



부시대통령은 공격 개시 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항국적 자유≫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전 세계인은 이 ≪더러운 전쟁≫이 ≪항구적 테러≫를 유발하여 결국 ≪항구적 전쟁≫으로 확대되는 ≪세계적 참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번 테러사건 이후 이같은 테러에 반대하고 이번 테러로 희생된 무고한 미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정부가 보복공격에 나서게 되면 또다른 테러를 불러오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실제상황으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여 보복 전쟁으로 상처난 미국민들의 자존심을 달래고 추락한 부시 행정부의 위신을 세우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량한 세계 시민들과 힘없는 약소국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증오감과 복수심만 심어줄 따름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보복전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테러범에 대한 처벌은 뒤따라야 하지만 무력도발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쟁까지 벌이면서 힘에 의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필시 전쟁 이상의 보복과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도 무분별한 친미일변도의 정책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쟁동참 문제를 거론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현

미국은 아프간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8일 새벽 미군과 영국군은 전폭기와 잠수함을 동원하여 5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프간을 침공했다. 미국은 9월 11일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더러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세계 민중들을 향해 공공연하게 협박을 해 왔다. 그리고 결국 오랜 내전과 경제난으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아프간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아프간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며 조국을 떠나는 난민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빈 라덴이 9 · 11 미국 테러의 주범이라는 뚜렷한 증거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테러에 대한 응징을 이유로 무고한 민중을 볼모로 하는 전쟁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듯 테러근절을 위한 보복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민중의 피를 부르는 침략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미국이 세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였던 무수히 많은 침략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학살만행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이 300만 명이다.

또한 98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20만 명이다.

유고 침공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7천 명이며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들의 야만적인 침략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자식과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통곡하고 있다.

그러나 9 · 11 테러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들의 침략전쟁 목록에 아프간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에 대한 외세의 침략행위가 그 나라 민중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지원 결의는 우리 민족을 미국의 범죄행위에 공범자로 내 모는 치욕스러운 행위임이 명백하다.

반미여성회(준)는 미국의 야만적인 아프간 침략행위를 준엄하게 규탄하며 미국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지지나 지원도 반대한다. 반미여성회(준)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민중과 더불어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이다. 아프간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

– 김대중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와 지원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

2001년 10월 8일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반미여성회(준)

www.banmiwoman.org 773-4067

미국공습과 김대중정권의 지지지원에 대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8일 새벽 미국이 테러에 대한 그 무슨 보복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시작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이에 대 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21세기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전세계인의 염원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수백만 아프가니스탄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학살만행이며, 국가적차원의 또 다른 테러행위이다. 아울러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 지원하고 나선 것은 세계평화를 유린하고, 아랍을 적으로 만드는 사대주의적이고 반평화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미국이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아프가니스탄이 용의자로 지목된 라덴의 신병인도를 거부했다고 해서 공습을 단행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백만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침략전쟁 그 자체일 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것도 평화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전쟁소식이 퍼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기아와 폭격, 전쟁의 공포속에 죽어가고 있다.

텔레반이 성명에서 밝혔듯 이번 공습은 새로운 보복을 부를 것이며, 테러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으며, 항구적이고 새로운 테러의 요인만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기간 자신들이 벌여온 힘의 논리에 의해 많은 나라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대한 정치군사경제등의 지배와 간섭을 한 결과가 바로 이번 테러의 원인임을 알고 패권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근거도 없이 벌이는 미국의 전쟁에 사대매국적인 태도로 지지 지원하는 것은 전쟁반대와 파병반대등 인류의 존엄과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룰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평화를 유린하는 침략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아랍인으로 하여금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민족적 이익과 전세계 평화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고 일체의 전쟁 지지 및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진정 평화를 바라다면 미국의 전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구호를 들어야 할 것이다.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한반도 긴장 조성하는 대북강경정책 철회하라!

– 미국은 새로운 군비경쟁쟁을 유발하는 세계패권전략인 MD정책을 중단하라!

– 김대중 정권은 사대매국적이고 반평화적인 일체의 전쟁지원을 중단하라!

– 이회창 등 냉전수구세력은 이번 테러를 통해 민족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반북대결책동을 중단하라!

2001년 10월 9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학살전쟁 중단, 파병지원 반대 성명

반테러 빌미로 자행되는 대량 학살과 자주권 침해의 ≪더러운 전쟁≫ 즉각 중단하라!

여야는 한미관계가 우선인지 생명의 존엄과 세계평화, 한반도평화통일이 우선인지 판단하라

8일 새벽 미국과 영국이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반테러를 가장한 또 하나의 테러이자 학살전쟁이다. 지난 9.11 테러참사 이후 전세계는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의 악순환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결같이 시위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 이같은 준엄한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을 개시한 것은 전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힘의 우위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생명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만행의 극치이다.

미국의 반테러 기치는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이 떨어진 그 순간 또 다른 학살의 재앙으로 전변됐다.

우리는 뉴욕 대참사 사건을 애도하며 테러를 반대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 세기 미국이 감행한 학살과 전쟁이 부지기수이며 특히 중동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얼룩지게한 장본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건국하는데 선봉에 섰다. 4차에 걸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평화협상에서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아랍제국에 막대한 손실과 민족적 원한을 맺히게 하였다. 극도의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반미를 외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처절한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과 민족적 존엄, 평화를 빼앗긴 자들의 분노를 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격은 편파적이고 반인륜적인 미국 중동정책의 일환에 다름 아니다.

미국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테러를 반대한다는 것도, 빈라덴 개인을 제거한다는 것도 모두 허울좋은 명분임을 알고 있다. 빈라덴 제거가 목적이라면서 탈레반 정권 전복을 주창하며 도심 한가운데 수백기의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난 한달간 수시로 이북이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임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정세를 인위적인 긴장상태로 몰고간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긴장대결책동을 폐기해야 한다. 자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 인류는 학살의 선명한 핏자국을 보며 웃고 있는 ≪멍청한 미국, 오만한 미국≫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똑똑히 들어라

지금 당장 이성을 되찾고 한미관계가 우선인지 생명의 존엄과 세계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치가 우선인지 판단하라! 한국군이 지원군의 이름으로 중동땅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우리는 분노한 아랍의 공통의 적이 될 것이며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된다.

정작 여야정치권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북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때를 만난 듯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공고히 보장하는 일이다.

한총련은 미국의 전쟁개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적극 연대투쟁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가로막는 그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0월 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승환)

미국의 보복전쟁을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이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건드리고야 말았다.

10월 8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40분경 미국은 자신들의 입으로도 밝혔 듯 더러운 전쟁을 감행하였다.

전쟁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난민과 기아속에서 허덕이던 20세기!

전세계 진보 인류는 21세기를 평화와 화합의 세기로 나아가고자 바래마지 않았다.

더 이상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라는 어둠의 페이지가 장식되지 않는 것은 전인류의 바램이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전세계 진보적 양심들의 기대와 노력은 완전히 짓밟혀 졌으며, 전세계 민중들은 다시금 전쟁의 불안과 긴장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21세기를 여는 첫해 2001년! 인류는 미국의 아프간 공습으로 인해 또다시 전쟁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미국에 대한 테러가 있은 후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으며 무참히 죽어간 수천의 민간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테러를 전쟁이라는 보복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테러를 더 잔인한 테러로 맞서는 것이며 미국은 정확한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보복전쟁이라는 단어를 내뱉기 이전에 이번 테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있게 자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진보적 양심으로 바라볼 때 이번 테러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기간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인과응보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핵무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으며,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각 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테러 대 반테러의 구도로 몰아가며 불안과 긴장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다.

결국 미국은 전쟁이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미개한 방법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이번 전쟁은 참으로 심각하다.

전세계적 차원으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테러국 대 반테러의 전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접전지가 반미의 감정이 어느곳보다 높은 중동지방에서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긴장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빈 라덴의 성명에서 이것은 단순히 아프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전쟁은 확산의 양상을 짙게 띄고 있다.

특히 한반도 이남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군사적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게 되어 있다.

미국은 이번 미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침해당한 자유를 전쟁을 되찾기 위하여!, 전세계적 차원으로 테러를 응징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 등등의 화려한 미사어구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전세계 진보적 양심은 똑똑히 알고 있다. 여지껏 미국이 자행한 전쟁들이 모두 그런 화려한 수식어구로 미화되었지만 결국 전세계에 대한 자국의 유일패권을 유지하고 허전한 자국의 주머니를 돈으로 채우기 위한 중요한 장사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길게 볼 것도 없이 최근 몇 년 동안만 보더라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각국을 직접 침탈해 들어갔으며, 내부분쟁이나 대결적 구도를 띄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을 부추기며 자국의 무기를 파는데 정신이 없었고, 자국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에는 온갖 정의의 이름으로라며 온갖 화려한 미사 어구를 동원하여 군사적 공격까지 단행하였다. 단적으로 이 땅 한반도에서는 자신의 유일정치군사적 패권에서부터 나오는 MD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북에는 대결책동과 이남에는 내정간섭을 통해 끊임없이 민족의 갈등을 심화시키려 획책하였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였던 나라가 바로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으로 똘똘 뭉친 나라라고 선전했던 미국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당장 전쟁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

이번 군사적 보복은 테러를 가장 잔인한 테러로 응징하는것이며, 이것은 이후 또다른 더욱 무서운 테러를 낳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과 목적을 폭력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내리 누르려 하는 자는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번 아프간의 전쟁의 화살의 시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진보적 양심들의 엄중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2001. 10. 09.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충청총련(의장 박찬영)

미국은 보복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미국이 8일 새벽 1시 반을 기해서 아프간을 상대로 그들이 말하는 더러운 전쟁을 감행하였다. 20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개 도시의 수많은 건물들을 폭파시키며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이라 선포하며 이른바 악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으로 자신의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결코 미국이 말하는 선과 악의 전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먼저 이번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탈레반 정권과 수많은 양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자를 쫓는다고 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법과 질서이다. 그런데 미국은 테러범을 잡는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파멸시키고 양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국가에 대한 월권이며 야만적인 침략행위이다.

미국은 테러로 비행기가 미사일로 둔갑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프간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은 쌍둥이 건물에 꽂힌 비행기와 다를 것이 없다. 테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또한 용납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번 보복전쟁은 또다른 폭력적인 테러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랍권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번 전쟁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보복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아랍권무장단체들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전투를 벌리거나 테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몇몇 무장단체들은 아랍권에 있는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포하였다. 또한 보복 테러로 인해 아프간만 전쟁지역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힘과 무기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과 정보력만 믿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당한 뉴욕테러의 원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미국의 강경적인 외교정책에 있는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시행정부는 자의적으로 분류한 테러지원국 나라에 대해 봉쇄를 강화하고 깡패국가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강경정책 일변도로 나갔다. 또한 기후조약 탈퇴나 MD강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편파적 손들어주기로 세계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의 아랍세계는 수단과 아프간에 자행되었던 지난날의 폭격과 이라크전쟁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미국의 힘의 정책이 테러참사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또다시 힘의 우위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보복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미국은 테러로 인해 실추된 위상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나라를 짓밟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를 겸허히 돌아보고 세계인들과 함께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진지한 모색을 해야할 때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0월 8일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매향리주민]기자회견문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미군들에 의하여 테-러를 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 조종사들의 담력을 키우며, 실전과 같은 생동감있는 폭격연습 속에서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실험용이 되어 미국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 왔습니다. 전쟁의 공습을 방불케하는 미공군 전폭기의 테-러의 고통속에서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생존권적 요구로 출발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피눈물하는 투쟁은 마침내 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고, 사회 각계 각층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매향리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연대투쟁으로 육상의 기총사격을 중단시키는 장엄한 역사의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육상의 기총사격이 중단되었을 뿐 여전히 매향리 앞바다에서는 기총사격과폭격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상의 기총사격장 토지 50만평을 반환하지 않고 철책을 더욱 견고하게 설치하여 언젠가는 기총사격이 재개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폭격연습을 바탕으로 실제로 무고한 아프카니스탄 주민들을 살육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은 아연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한 인명살상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미국의 매향리의 폭격연습은 국지전이 있을 때마다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8일 아프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전쟁테러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9월 11일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미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실전과 같은 폭격연습의 실험용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당한 50년의 고통은 미국민이 당한 테-러의 고통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매향리의 고통에 대해 죄의식없이 자행한 미국은 결코 자신들의 보복 전쟁행위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전쟁은 수많은 양민의 학살을 불러올 또 다른 테러에 다름 아니며, 피는 피를 부르고, 보복전쟁은 새로운 대 참사를 불러들일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대 참사의 범인은 국제법에 따라 세계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전쟁놀음을 벌이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미국은 즉각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는 아프간에 대한 폭격과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연습장인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을 즉각 철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향리 주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재앙에 빠뜨릴 미국 당국의 국제적 무한 보복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약속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욱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명분없는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간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우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군사 조치 또한 정당하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파병을 공언하는 것은 미국이 아프간에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떨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 일 뿐입니다.

따라서 폭격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온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모든 전쟁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매향리에 평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전쟁연습과 전쟁놀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보복 전쟁에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미공군 국제 폭격장을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년 10월 9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 주민일동

보복전쟁 중지 촉구 성명서

– 미국은 보복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평화 실현 노력에 동참하라

우리는 미국이 세계무역센터 자살테러사건에 대한 보복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세기 첫 해가 테러와 전쟁으로 시작되었다는 불행한 현실에 대해 우려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자살테러 공격에 의해 희생된 미국인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테러와 폭력, 그리고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지향의 입장을 한두번만 밝힌 것이 아니었으며 이런 입장을 촛불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보복공격은 테러의 범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마치 한풀이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정부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몇 나라들에게 전달했지만, 증거를 전달받은 나라에서 조차도 증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테러사건의 규모와 충격을 생각해 볼 때 증거를 온세계 앞에 떳떳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정의의 양심에 호소해 테러범들에 대한 단죄를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불확실한 증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공개함으로 온세계 인류의 공감과 참여를 배제한채 무모한 보복의 악순환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되지 못한다. 정당한 증거와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해결과정을 배제한 무력행사는 또하나의 테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한다.

우리는 보복공격은 새로운 테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다른 보복전쟁을 가져와 온 세계는 불행한 폭력의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 학살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경찰(FBI)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보복테러는 100%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전역은 공포로 뒤덮여 있다. 또한 수도 카불 등 아프카니스탄 전역에서는 어두운밤을 가르고 다가오는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난민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피해 파키스탄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절규하고 있다. 보복전쟁과 보복 테러의 최대 희생자는 다름 아닌 양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해결을 촉구해 온 것이다. 미국은 보복전쟁과 보복 테러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막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책임자 규명과 처벌의 과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테러 사태에 나타나는 일본의 망동을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테러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평화헌법의 근본 정신조차 부정하며 자위대 재무장과 파병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동북아 관련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경계를 받았다. 일본은 자기 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위기를 전쟁 분위기 고취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군국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군국주의화를 서두름으로 새로운 세기를 전쟁과 불안정의 방향에서 열어가고자 하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위대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즉각 중지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통감하며 동북아지역의 평화로운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의 외세추종적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테러 발생 초기 전군경계령 발동으로 쓸데없는 남북긴장 조성 조치를 내리며 양식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이제 보복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전쟁을 지지하며 걸프전 수준에서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이 걸프전쟁과는 성격이 다른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걸프전은 국제법적 명분과 전쟁 대상이 분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복전쟁은 증거도, 적도 불분명한 가운데 시작되어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이다. 이런 가운데 보복전쟁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참여를 선언한다면 그것은 국익을 냉철히 검토하지 않은 외세 추종적 태도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군대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가운데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있다. 이는 곧 있을 남북 이산가족 만남과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복전쟁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우선으로하는 자주적 태도이다. 하지만 이번 보복전쟁과정을 통해 정부가 보여준 외세추종적 태도는 민족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 상대가 아프칸 국민이던 미국인이던 차별없이 인도적 지원만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는 파병은 비전투원이라고 하더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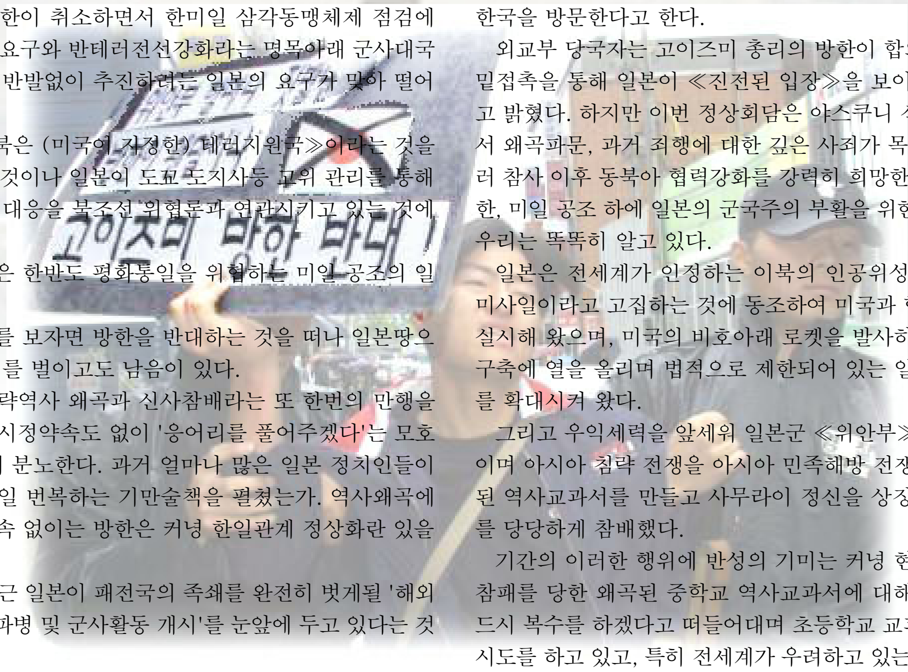
우리는 테러와 보복전쟁, 보복테러라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오는 불행한 현실을 맞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세계 양심의 힘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고 폭력과 테러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기독인들은 꾸준히 기도하며 앞장서 나갈 것이다.



고이즈미 방한 반대, 일본 군사대국화 규탄

한반도 재침야망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오는 15일 이남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월드컵도, 경제문제도 아닌 중동전쟁에 바쁜 부시를 대신해 한미일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대북강경정책을 점검확인하고 동시에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대국화 조치에 대한 홍보와 동의를 얻어내고자 함이다.

고이즈미의 방한 계획은 미국땅에서 이루어 졌다. 일본은 미국 테러참사가 일어나자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 부시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테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보복전쟁 준비로 방한이 취소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점검에 차질을 빚은 부시의 요구와 반테러전선강화라는 명목아래 군사대국화 조치를 주변국의 반발없이 추진하려는 일본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북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이 도쿄 도지사등 고위 관리를 통해 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북조선 위협론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에서 쉽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미일 공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자면 방한을 반대하는 것을 떠나 일본땅으로 당장 날아가 시위를 벌이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역사 왜곡과 신사참배라는 또 한번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참회와 시정약속도 없이 '응어리를 풀어주겠다'는 모호한 말을 내뱉는 것에 분노한다. 과거 얼마나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어제 사과했다가 내일 번복하는 기만술책을 폄쳤는가. 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시정약속 없이는 방한은 커녕 한일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

가장 큰 우려는 최근 일본이 패전국의 족쇄를 완전히 벗게될 '해외분쟁지역의 자위대 파병 및 군사활동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분쟁지역 파병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정 이후 갖은 술수로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를 시도했다. 미일 안보조약으로 기지개를 폈고 그힘으로 92년에는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캄보디아에 파병되었다. 99년에는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대비 주변사태법을 제정했고 급기야 올해는 미국 테러참사를 계기로 자위대 육해공군이 동시에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을 수립했다. 이 뿐인가. 북조선 미사일 대응을 운운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목적으로 대형운반로켓 H-2를 시험발사하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실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이즈미가 설령 역사왜곡을 사죄하고 시정을 약속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정세에서 일관성 없는 굴욕외교로 국민들의 애국애족에 기반한 반일 감정을 기만한 현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6.3 시위와 같이 대일굴욕외교는 곧 집권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는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 기어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역사왜곡 사죄 및 시정 약속, 북조선 위협론 철회, 자위대 파병 및 해외합동 군사훈련 계획 철회만이 진정한 화해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0월 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승환)

군국주의 부활에 미쳐 날뛰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고이즈미가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합의된 데는 그 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과거 죄행에 대한 깊은 사죄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 테러 참사 이후 동북아 협력강화를 강력히 희망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미일 공조 하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기만적인 술책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일본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이북의 인공위성을 오로지 미국만이 미사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에 동조하여 미국과 함께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미국의 비호아래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본의 무력사용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우익세력을 앞세워 일본군 ≪위안부≫역사는 화장실 역사이며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아시아 민족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당당하게 참배했다.

기간의 이러한 행위에 반성의 기미는 커녕 현재 교과서 채택에서 참패를 당한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4년 뒤에는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며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강력 지지하며 그것을 빌미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자위대 파병에 열을 올리면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참사와 관련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강화를 희망하는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겠다고 밝히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토록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어디 감히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인가?

어설픈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를 또다시 침략하려는 일본의 야욕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본질과 위험성,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범국민적 차원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위력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고이즈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한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먼저 과거 죄행에 대한 분명한 사죄 배상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2001년 10월 8일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의장 조희진)

미국의 침공역사

파나마 운하 영구점령(1903),
산토도밍고 침공(1903 1904),
쿠바 점령(1906 1909),
니카라과 침공(1910),
온두라스 침공(1910-1911),
중국 상륙, 베이징 침공(1911 1912),
파나마 침공(1912),
니카라과 침공(1912 1915),
멕시코 침공(1915 1916),
산토도밍고 점령(1916 1925),
제1차 세계대전 참전(1917 1918),
파나마 치리키 점령(1918 1920),
신생국 소련 침공(1918 1920),
코스타리카 침공(1919),
과테말라 침공(1920),
파나마, 코스타리카 침공(1921),
중국에 무력개입(1922 1941),
온두라스 침공(1924 1925),
파나마 침공(1925),
니카라과 침공(1926 1933),
온두라스 2차 침공(1931),
중국 양자강 연안 점령(1937),
중국 광동, 태평양의 엔더베리 점령(1938),
그린랜드 항구 점령(1941),
아이슬랜드 점령(1941),
한국전쟁(1950 1953),
이란의 모사디그 정권 전복(1953),
과테말라 군사개입(1954),
피그만 침공(1961),
베트남 전쟁(1964 1972),
엔크루마 정권 전복(1966),
라오스, 캄보디아 무력개입(1970),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1973),
케냐의 무왕기 카리우기 암살(1975),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 전복(1975),
콩고인민공화국 정권 전복(1977),
카스트로 암살 기도(1960 1981),
파나마의 토리호스 암살(1981),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1980 1984),
엘살바도르 내전 군사개입(1981 1983),
그레네이더 침공(1983),
걸프전(1990-1991),
소말리아 무력개입(1992-1995),
수단, 아프가니스탄 미사일 공격, 이라크 공격(1998),
유고연방 침공(1999)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주년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일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진두에서 개척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의 전위당인 조선로동당은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밝히고 주체시대의 향도적 역량으로써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장군님은 곧 조선로동당임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사상이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며 장군님의 영도이자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이며 장군님의 덕망이자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하여 현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 가장 애국적이고 애족애민적인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최상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당의 양양하고 창창한 앞날은 확고히 기약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창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주체형의 당의 탄생을 선언한 일대 경사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수천년 민족사에 빛마저 잃었던 조선은 세인이 선망하는 ≪**김일성** 조선≫, ≪주체의 조국≫으로 자랑 떨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지심으로써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는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일찍이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으신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주석님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조선로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영광된 노정위에 무비의 위훈을 찬란히 수놓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하여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반석같은 조직사상적 기초와 완벽한 영도방법을 겸비한 노숙하고 전투적인 주체혁명의 참모부로 민중과 혈연적으로 일체화된 어머니당으로, 어버이주석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원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된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주체위업을 한치의 편차도 없이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시고 만민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이후 닥쳐든 천겹만겹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20세기를 주체조선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고 21세기의 첫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 고립압살책동을 쳐물리치며 세계정치사상 처음보는 선군시대의 새 역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었기에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하늘에 닿아 있고 주체조선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의 북소리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한 시련의 세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역사가 어버이주석님의 영생사로 무궁토록 흐르게 하신 것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계심으로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거창한 위훈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새 세기를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나게 장식해 가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북민중은 근로민중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온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그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성업에로 이끌어주시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류태양의 거룩한 혁명실록을 펴놓으시며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을 비롯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자주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이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세계정치발전의 주도자, 인류자주화위업실현의 창조자로 공인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많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 사상과 영도가 위대하고 활동이 노숙하며 전도가 양양한 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말로 천재적 예지와 출중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선로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불패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이론, 투쟁방략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압제의 어둠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결집을 굳건히 다지고 사상의 일색화와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애국적 전위대로 성장발전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끝없이 숭배하며 따르는 것은 우리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정치적 신앙이며 불변의 양심입니다.

지금 남녘의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 정치원로로, 21세기 태양으로 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민족임을 자부하며 장군님만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안고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필코 앞당겨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이남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10월 8일
서울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새 세기 들어 더욱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창당 56돌을 맞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향도 하에 백전백승하며 혁명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쌓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지난 56성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며 주체위업완성으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혁명노정이었으며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돌파하여온 영광찬 승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혁명사에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창건하시었으며 이후 주체성이 강하고 광범한 대중지반을 갖추며 영도의 계승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역량을 강화하고 그 정치적 기능을 제고하는 주체의 원칙을 선행하시며 두 제국주의와의 준엄한 전쟁과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히 영도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ㅌ.ㄷ≫이래 조선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었으며 조선노동당의 모든 영도업적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을 떠난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시고 조선노동당과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을 어버이수령님을 향한 충효의 결정체로 다져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건설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전례 없는 불후의 대공적입니다.

천재적 사상가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조직사상수준이 최상에 이른 강위력한 당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이자 군이며 군이자 당이라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으로 군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 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심으로써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선군혁명의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당과 군을 혁명의 2대 기둥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오늘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는 혁명의 금성철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위에 이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등대로 거연히 솟아 웅장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조국통일의 비약적 국면을 창조하시는 한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시며 90년대 총포성 없는 조미대결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선노동당 창당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노련한 정치외교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장장 20여일간의 러시아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미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대미포위망을 완성하시었으며 더불어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으시었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가 선군영도와 신묘한 전략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는 한편 유일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국제적인 수령, 향도의 태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과 비범한 전략, 고매한 덕망, 불멸의 위업으로 21세기 자주시대를 거침없이 개척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만을 거듭하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당이요, 노동당시대야말로 가장 영광 넘치는 위대한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이남의 변혁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도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의 마음이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전당과 전민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며 장군님의 권위가 날을 따라 비상히 고양되고 나아가 절대화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경사스런 당창건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당면한 전술단계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하며 반미반이회창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겠다는 열화 같은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백전백승 전위당이 있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필승의 투쟁전략이 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0월 10일
서울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북남당국회담 진행

오는 19일에 제2차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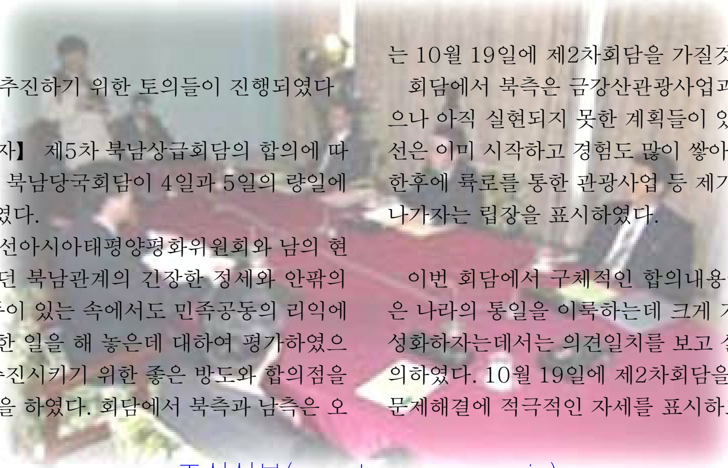
회담에서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토의들이 진행되였다

【고성발 문광선, 리송학기자】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남당국회담이 4일과 5일의 량일에 걸쳐 금강산려관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북측과 남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의 현대가 지난 3년동안에 랭랭하던 북남관계의 긴장한 정세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이 있는 속에서도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고 통일지향적인 훌륭한 일을 해 놓은데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하였다. 회담에서 북측과 남측은 오는 10월 19일에 제2차회담을 가질것을 합의하였다.

회담에서 북측은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급에서 합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계획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선은 이미 시작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 놓은 배에 의한 관광을 활성화한후에 륙로를 통한 관광사업 등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도 토의해 나가자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자는데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실천적대책들에 대하여 많이 론의하였다. 10월 19일에 제2차회담을 열것을 합의한 사실은 쌍방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신보(www.korea-np.co.jp)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는 9일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을 공개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은 함경남도 출신의 권지은(87.여)씨가 평양에서 아들 이병립(60)씨를 만나 모자의 정을 나누고 평안북도 출신의 길영진(80)씨는 북녘의 아내 리영희(73)씨와 아들 길창근(55)씨와 55여년만에 재회한다.

남측 방문단의 최고령자는 93세의 어병순 할머니로 오는 16일 평양에서 딸 리신호(65)씨와 외손주 최정섭(30) 인섭(28.여), 외손녀사위인 오경삼(29)씨를 만나게 된다.

당초 남측 방문단에 포함될 예정이던 노용운(78)씨는 이날 오전 북측이 여동생 인순(75)씨가 급병으로 혼수상태에 있어 움직일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방문단에서 빠지고 대신 북측에서 사촌을 만나게될 이성춘(62)씨가 가족상봉의 행운을 안게 됐다.

남성 66명, 여성 34명으로 구성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연령대별로 ▲80대 이상 23명 ▲70대 54명 ▲60대 23명으로 상봉 재북가족별로 ▲처.자식 17명 ▲형제자매 61명 ▲삼촌 19명 ▲사촌이상 3명 등이다.

북측 방문단 100명중 서울 종로구 출신의 강대진(69)씨는 남측에 사는 90세의 노모 박순이씨와 동생 대숙(64.여), 대성(61)씨 등을 만나고 인천 출신의 신용철(71)씨는 남측에서 아내였던 이순애(73)씨를 만나 부부의 정을 나눈다.

북측 방문단의 최고령자는 83세의 조석승씨로 서울에서 딸 상녀(55) 상옥(51)씨와 누나 순일(80)씨, 여동생 순녀(67)씨와 순옥(62)씨를 만난다.

또 민주평회통일자문회의 김민하 수석부의장의 형으로 전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부 교수를 지낸 성하(74)씨와 인하대 총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낸 박태원 박사의 동생 태윤(69)씨도 이번 북측의 서울 방문단에 들어있다.

북측의 유명인인 공훈예술가 황영준(81) 화백은 서울에서 큰 딸 혜숙씨를 만나고 가족과 헤어질 당시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북측에서도 의사로 지낸 박문근(75)씨,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리봉태(72)씨도 방문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8~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기(75)씨의 형 종섭(78)씨는 이번 북측의 방문단에서 빠졌다.

특히 북측 방문단은 지난 2차, 3차 방문단 교환때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이어서 무산될줄 알았던 상봉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남 가족들에게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북측 방문단은 남성이 86명, 여성이 14명으로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3명 ▲70대 45명 ▲60대 52명이며 출신지역은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명 ▲충남 13명 ▲서울 12명 ▲충북 11명 ▲전북 8명 ▲강원 5명 ▲경남 4명 ▲전북 3명 ▲제주 3명 순이었다.

반면 남측 이산가족 방북단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큰오빠 박승남(75)씨가 북측 방문단 후보에 포함되어 있어 방북을 포기했던 박재례(6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씨는 북측의 방문단 명단에 오빠의 명단이 빠져있어 가족 상봉의 기회가 무산됐다.

한편 이날 교환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은 오는 16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해 가족들을 만나 이산의 한을 달래게 된다.

서울을 방문하는 북측 방문단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 방문단은 고려호텔에 묵으면서 단체상봉 1차례, 2차례의 개별상봉을 한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이번 방문단의 일정을 3차 방문단 교환에 준해 치러 나갈 계획이다.

2001/10/09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정당간 교류 막는 것은 통일부의 자가당착

-민주노동당, 통일부 앞 규탄 기자회견 가져

≪민간교류, 당국자간 대화는 하면서 정당간 교류 막는 것은 통일부의 자가당착이다≫

민주노동당은 10일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낸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 통일부를 규탄했다.

이승헌(민주노동당) 통일국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지난 8.15 평양대축전 때 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 만나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고 합의했고 이어 9월 6일 ≪조선사회민주당≫에서 토론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해와 지난 9월 11일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낸 것이라고 그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9월 27일, ≪남북 정당의 특성, 현 남북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개별정당 차원에서 남북간의 정당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지를 해 왔다고 기자회견문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통일부의 불허는 판단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와 당국자간 대화는 계속하면서 정당간 교류를 막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통일부를 비난했다.

이어 성명서는 통일부가 계속적으로 정당간 교류를 불허한다면 통일부 규탄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후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과 10여명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통일부를 규탄하는 의미의 ≪통일부에 생수를 먹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진행후 이승헌 통일국장과 최창준 성동지구 위원장이 통일부 교류2과 이충원 과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후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통일뉴스 2001-10-10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용산미군기지 반환 연대기구 결성 준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연대기구가 구성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녹색연합, 자통협을 비롯한 20여개의 단체들은 지난 9월 26일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갖고 연대기구의 명칭을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용산운동본부)≫로 결정하고 결성 경로 및 일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단체별 혹은 몇몇 단체의 연대로 진행해 왔던 용산기지 반환투쟁의 한계를 넘어 보다 폭넓고 조직적인 반환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대기구의 결성의 조건은 이미 상당 부분 충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미 대사관 월례집회, 민주노동당과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의 용산 미군기지 앞 월례집회와 금요집회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미운동이 점차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들의 반미정서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용산운동본부는 오늘(5일) 그 준비를 위한 1차 준비소위 모임을 갖고 오는 25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용산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한다. 용산운동본부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포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봄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연대기구 등을 비롯해 각 사안별로 연대의 틀을 갖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대라는 운동방식이 갖는 한계로서 그 집행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종국에는 그 기구가 유야무야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한 축에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용산운동본부가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려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을 수 있는 이후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뉴스 2001-10-05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반미투쟁 연대사

반미자주화투쟁의 선봉에 선 한총련과 한총련 소속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조선학생위원회는 미제의 대조선강경정책에 분노의 심장을 달구며 ≪미군기지반환과무기강매 반대≫투쟁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한총련 100만학우들에게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학우들이 벌리는 이번 반미투쟁은 온 남녘땅에 반미열풍을 휩쓰는 계기로 되며 이 투쟁에서 한총련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지극히 애국적이며 의로운 투쟁으로 됩니다.

돌이켜보면 미제의 군화발이 이땅에 닿은 지난 50여년간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미제에 의하여 실천과 로근리,매향리 등 이땅에 원한품고 쓰러진 부모형제들의 피타는 절규가 우리들의 귀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한 보상은 커녕 남녘땅에 계속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대조선강경정책으로 6.15공동선언의 리행에 제동을 걸면서 동족상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횡포하고 간악무도한 침략행위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남녘의 청춘들이 미군철수와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합니다.

조선학생위원회는 한총련이 앞으로도 반미자주화투쟁과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는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학생위원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9월 24일

미국반대 1인 시위



어제 8일(월) 수원역에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미국반대≫의 피켓을 들고 수원시민을 만나가며, ≪반미≫내용을 알려나갔습니다.

시민분들은 새벽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 소식을 접해서 어느때보다도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집회때마다 아주 가끔(?) 느끼는 차가운 시선은 거의 없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눈과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분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떨리고, 피켓들고 서있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리높혀 선전전을 하기에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큰소리로 선전전을 시작하니까 눈으로만 흘깃 쳐다보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시민분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주변에 항상 10여명 가량의 시민분들이 둘러 서있으시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저 역시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복공격 반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철회≫, ≪이남의 무기강매 반대≫, ≪주한미군 철거≫,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는가≫, ≪미국이 통일의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미테러 사건이 터진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등의 많은 물음을 해오셨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도 있었고, 저희의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비록 나이 많으신 참전용사(?) 분들은 참전증까지 보여주시며 저희의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막아나서기도 했고, 역마다 볼 수 있는 술에 약간 취하신(?) 분들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애국적인(?) 시민들분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면서 저희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시민분들의 의식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그 중심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쿤둥하시다가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분들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결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미, 반이회창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615 공동선언의 새로운 단계로 전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1인시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나 투쟁과 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의 성지, 불패의 선전꾼
전대기련 경인지부 지부장 한신학보사 편집국장 고수봉



이회창은 정치난장이

구국전선 10월 1일자



난장이라는 말은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치난장이라면 정치실력으로 볼 때 수준이 매우 낮고 미숙한 것을 비겨이르는 말일 것이다.

요즈음 항간에 이회창이는 정치난장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총재로 있는 이회창이 정치를 한답시고 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아온 민중이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도 무식하고 아무모로나 쓸모없는 그에게 내린 정확한 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이 사람들로부터 정치난장이라는 혹평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에게는 정치가로서의 시각과 청각, 판단능력이 없기때문이다.

멀리는 그만두고 지난해 6월부터 드러낸 이회창의 행태는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해 6월 평양에서는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 상봉이 이루어졌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6.15공동선언으로 하여 우리 겨레에게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부흥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하여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앞을 볼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환경에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와 상반되는 언동만 일삼았다.

공동선언에 명기된 연합제안은 개인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느니, 정부가 이북에 이용당하고 있다느니, 제도통일이 아닌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느니 하고 역설하다 못해 이북은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동선언발표후 남북간에는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북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장관급회담 등 각종 형태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내왕했으며 각이한 분야에서 많은 물류가 오고 갔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무식장이인 이회창은 상호주의니, 검증이니 하는 얼빠진 소리를 줴치다 못해 일방적인 이북퍼주기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해마다 주한미군에 퍼주는 30억달러이상의 국민혈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말이다.

또 지난 8월 평양에서 있은 8.15통일대축제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단성원들에게 치하의 말은 고사하고 찬양, 고무, 이적의 모자를 씌우더니 그를 구실로 통일부장관목따기에 달라붙는 등 저들의 정략실현에만 급급했다.

현실적으로 이회창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도의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가 하는 짓이란 ≪총론찬성≫, ≪각론반대≫하는 식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 ,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빨간딱지나 붙여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등 민중과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 뿐이다.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만 골라하는 청개구리같은 이회창을 정치난장이로 야유하면서 민족반역자로 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자가 정치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수치다.

또 이런 자가 총재라고 하니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집단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그들의 종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중의 삶의 권리도 찾을 수 없고 조국통일도 이룰 수 없다.

각계민중은 일치하게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일≫이라는 속담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노 선 일≫



그날의 결의지켜 자주통일투쟁을 더 힘있게 벌여나가자

구국의 소리 10월 1~2일

오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문제죠. 청년학생들은 이 투쟁에서 청춘의 열과 성을 다바쳐 나감으로써 통일선봉대로써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날의 결의지켜 자주통일투쟁을 더 힘있게 벌여나가자≫ 오일씨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민족통일운동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통일운동은 대중적운동으로 확산되고 보다 새로운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평양에서 열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정을 통해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은 그 뚜렷한 사변의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눈부신 활동은 온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대론회와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청년학생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을 더욱 절감하게 됐고 공동선언이야말로 새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학생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구성원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청년학생들이 담당수행해야할 성스러운 역사적과제입니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습니다. 그런만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애국자로 될수 있고 민족구성원으로써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담당수행하는 일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애국과 통일에 사는 청년학생들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이 민족적과제를 수행하는 투쟁에 자기의 정열과 지혜와 힘을 다 바쳐야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보람이 있고 빛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투쟁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때 민족대단결이 이룩되고 민족의 자주통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철저한 보호자, 관철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저절로 이룩되지 않으며 또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하며 당면하게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6.15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청춘의 힘과 열정을 바쳐가겠다고 결의한대로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또한 민족의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외세와 보수우익세력과 반통일분자들과의 타협없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부시미행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 반북압살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고 보수우익세력과 반통일분자들은 미국의 반통일책동에 편승해서 나라의 자주통일을 극력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년학생들이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보수우익세력과 반통일분자들과의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통일운동을 강화,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청년학생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철저히 짓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과의 통일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통일운동의 주체적역량을 보다 튼튼히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민주통일의 선봉대로써 시대와 민족앞에 다진 결의와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서 청년학생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막중하죠. 그날에 다진 결의대로 청년학생들은 통일운동의 선봉에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민련은 정치간상배집단

구국의 소리 10월 1~3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한국의 정국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국이 불안하고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는건 물론 여러가지 요인때문이지만 한나라당과 함께 자민련패거리들의 책동과도 관계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민련패거리들의 간상배적 행위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민련패거리들로 말하면 정치적 야욕을 **위해 모여든 간상배무리들이라고 볼수 있죠.

윤정원 : 그렇죠. 자민련은 1995년 김종필****그때 김종필은 김영삼의 민자당**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민자당에 그대로 눌러앉아서는 대권나설수 없다고 간파한 김종필은 다음번 대선은 물론이고 의원내각제 실시구호를 들고 민자당에서 탈퇴한뒤 자민련을 결성하고 그 총재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민련의 정치기반으로 되는건 반민족공화당의 우익보수파세력과 ***출신들, 충청도 출신들입니다. 그들로 말하면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 없을뿐 아니라 ***행동하는 간상배들의 ****

사회자 : 김종필 자민련**현 정부출범후 민주당과 공조를 해왔는데요. 그건 야당을 견제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등에 업고 정치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죠.

윤정원 : 자민련은 독자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일어****열세하죠. 따라서 집권**나설수 없었어요. 특히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은 크게 패했잖아요.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인 국회의석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종필은 민주당과 공조를 택했던거죠. 자민련이 민주당과 공조했던건 **집권 후반기에 내각제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였습니다. 내각제***내각제를 실현하면 김종필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을수 있겠다 타산을 했죠. 이처럼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은 민주당을 등에 업고 집권욕을 실현하려는 야심에서 민주당과 공조를 펴왔습니다.

사회자 : 자민련은 이번에 민주당과 공조를 파기하는 정치도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민련이 그렇게 한건 민주당과 약속한 내각제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공조를 해서는 저들의 집권야망을 실현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였죠. 정말 정치간상배로써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정원 : 김종필일당은 이번에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공조를 깨고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과 손을 잡는****데 차기 대권을 노리고 민주당과 공조를 행하던 김종필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장관해임안에 찬성을 하고 민주당과 결별함으로써 정치간상배로써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은 민주당과 결별을 한 것은 여권의 형세가 불리해진 것과 관련되는데요. 최근 여권에 대한 한나라당 **** 한층 더 강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합세해 민주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했죠.

사회자 :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은 민주당과 공조를 깨고 여권에서 ***하고 정국을 더욱 혼란하게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자민련은 여권에서 탈퇴함과 함께 자민련내에서 ***원내 교섭단체**까지 상실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 물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됐죠. 원내 교섭단체로써의 지위와 역할을 잃게된 자민련은 자기의 가련한 신세를 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요. 김종필은 얼마전에 자민련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자민련이 앞으로 국회에서 정책권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떠들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결에서 여당과 야당의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도록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 얼마나 비열하고 염치없는 짓입니까. 자민련패거리들로 말하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상실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더욱 비열한 것은 한나라당패거리들에 추파를 던지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공조해 여권을 수세에 빠뜨리리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신조도 신념도 없는 너절한 정치간상배의 행위죠.

사회자 : 그렇죠.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의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건 여권에서 탈퇴한 후 반민족적인 반통일공세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민련패거리들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를 하면서 온 민족의 최대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은 원래부터 남북간의 **와 나라의 통일을 원치 않는 반통일보수세력들인데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국민들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남북간의 접촉과 협력, 교류가 진척이 되자 자민련패거리들은 음으로 양으로 그를 반대하면서 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민련패거리들은 발은 여권에 들여놓았지만 남북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놀았죠. 이번에 여권에서 탈퇴한 후에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다며 노골적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어요.

사회자 : 자민련의 정치간상배들때문에 앞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더욱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저 역시 같은 생각이예요. 자민련패거리들은 한나라당과 단짝이 돼서 6.15공동선언이행에 한사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초미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9월 18일 김종필은 이회창과 만나 짝짜꿍이를 벌인 끝에 대북공조는 ***져서는 안되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법과 제도를 **한다는걸 ***했다고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풀어주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남북관계개선에 해를 끼치는 이따위 짓을 하는 김종필 역도야말로 반통일분자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김종필자민련패거리들의 배신행위로해서 앞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회자 : 김종필 자민련패거리들과 같은 정치간상배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막을수 없고 특히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죠. 원래 정치간상배들의 안중엔 나라와 민족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당파, 분파의 집권야망과 일신의 **뿐이죠. 이를 위해서 이들은 당파간, 계파간의 정쟁과 분파싸움만을 일삼는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자민련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정치간상배들은 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대매국행위도 서슴치 않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려는 행위 또한 서슴지 않습니다. ***하고 추악한 야심을 **해보려고 정쟁만을 일삼으면서 **들을 야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정치간상배무리들은 마땅히 우리 국민과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으로 매장해야 합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자민련은 정치간상배집단이라는데 대해 윤정원씨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신념과 신조는 생명이라고 하겠죠. 칠면조처럼 신념이 변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죠.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놓고 저울질하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에 기생해서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간상배, 정치철새라고 할겁니다. 김종필 자민련패당들에 대해 국민은 이미 전에 벌써 일신과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치간상배집단이라고 ***하면서 ****김종필자민련패거리들의 행태는 ********.

관계당국이 국보법을 휘둘러 학생들과 애국 인사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10월 7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온 겨레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악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땅에서는 민족의 이러한 한결같은 요구와 지향에 역행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사면위원회가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오히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당국은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를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계속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법을 코에 걸고 감행되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날을 따라 그 도수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한총련대의원들에게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공개수사령을 내리겠다는 위협편지를 보내는 한편 조직에서의 탈퇴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한 대의원 전원을 체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9기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소동이 벌어지는 속에 지난 6월 한양대학교에서 있은 9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는 등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탈퇴를 거부했다해서 안모군을 비롯한 서울지역 대의원 10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지금 한총련대의원들과 핵심성원 600여명이 구속됐거나 수배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건 한총련뿐 아니라 노동운동가들, 각계 애국민중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이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 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에 공조하는 각종 문서를 탐독했다해서 관계당국이 그들을 ********민족민주혁명당 영남지역위원장 최진수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많은 애국적 시민들이 희세의 파쇼악법에 얽매어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국보법유지를 고집하는 보수우익세력들과 공안당국은 이북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이 악법에 걸어 탄압하는 낡고 구태의연한 수법에 계속 매달리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있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남측본부성원들과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에 대한 탄압이 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당국은 그들이 제작배포한 각종 문서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엄혹한 현실을 두고 이땅에서는 국보법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분명히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민중은 국보법의 희생물로 될 것이 아니라 이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달라진 한반도의 정세와 *******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해야합니다. ************국보법철폐를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걸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해야합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이의있습니다≫

대학생 30여명, 대법원앞 시위

한총련 이적규정문제가 올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론화 된것은 물론, 지난 7월엔 경찰청의 한총련대의원 출석요구에 맞선 수배자들의 집단 자진출두투쟁, 경찰청장 면담등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따라 9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논란을 빚었으나 현재 한총련대의원 직책을 맡고 있는 각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연행사태가 속출하고있다.

올해 3명의 대의원이 연행된 경희대를 포함 중앙대 학생등 서울지역 대학생 30여명은 오늘(6일) 12시경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총련이 615공동선언이후 검찰이 이적규정의 근거로 지적하는 연방제안을 삭제하고,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80년대식 학원사찰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등 학내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 학생들을 잡아가는 공안기관은 상식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고 규탄했다.

실제 9기 한총련은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통일강령인 ≪연방제방안≫을 ≪615공동선언실천≫으로 수정하고 한총련의 정당성과 대중성 확보를 위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현 한총련 의장(최승환, 부산대총학생회장)을 포함 한총련이 이적규정된 시기인 96년, 97년 당시 한총련 4,5기 의장 정명기, 강위원씨등 5명이주축이 돼 활동중이다.

이들은 향후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함께 ≪백만인 선언운동≫, ≪한총련 이적규정백서 발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기대 총학생회장 이경민군의 항소투쟁등을 통해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1-10-06

국회는 당리당략 중단하고 국보법 폐지하라!

-국폐모,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이 정기국회 기간에 맞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국폐모는 4일 ≪국회는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인 시위에 들어가 오는 12월 정기국회 마감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1인 시위에 들어간 국폐모의 최창우 대표는 이번 1인 시위는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최창우 대표는 특히 ≪최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을 가결시킨 것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싸움에서 보여주듯이 국회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기관으로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그 단적인 예로 최근 8.15평양 행사 방북단의 구속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최창우 대표는 한나라당이 미국의 테러사건 발생 후에 발표한 성명에 대해 매우 격분했다.

테러발생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 뚜렷한 당론을 회피하던 한나라당이 테러와 국가보안법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발생 이후에는 테러가 국가보안법의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최 대표는 주장했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령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황스러웠었다≫고 밝히면서 ≪범민련의 강령규약 개정은 3자간의 깊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범민련이 강령삭제의 방법으로 대중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보법 투쟁전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굳건히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가 그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열심히 한 곳이라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우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투쟁이 지금은 소강상태인 것으로 진단하고는 진보언론의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창우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를 약 10년 정도 활동이 진행될 때쯤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한 실천이 그 폐지 시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폐모의 1인 시위는 국폐모 회원들과 고문,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원자를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 2001-10-04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국회는 당리당략 중단하고 국보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이름과는 다르게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보호를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친일파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에 냉전질서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냉전질서가 해소된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방북단 구속과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극우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낡아빠진 안보논리 속에 갇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잘못된 의식이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이 부족한데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전문을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활동가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역사 한가지만 보아도 이 법이 어떤 성격의 법률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서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먹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전두환 정권 때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한 것이다. 반공법을 폐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약간의 수사로 포장하여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나누어서 실천에 나서야한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구체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시민운동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투쟁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에서 만든 쿠데타 악법인 국가보안법 개폐하나 해내지 못하고 임기를 채울 셈인가?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는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어찌할 셈인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말을 못하는가 아니면 말을 안하는가? 그러면서도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설 얼굴이 있는가? 이른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엇그제, 정확하게는 미국 테러사건이 났을 때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주장까지 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한나라당 안에 이른바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했었는데 미국의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우선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임동원 장관을 자르는데 찬성표를 던질 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혁적이지도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개혁적인 체 하는 정치인들은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른바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국회는 없으면 좋을 존재이다.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반동적인 구실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로 구분하거나 인물 개개인으로 구분해 볼 때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서로 잘났다고 키 재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한 여야는 본질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어쩌다가 한번씩 주장하는 여당 역시 국가보안법 개폐에 힘을 쏟는 노력을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유지에 담합한 한통속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야의 개혁파로 불리는 의원들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개혁파라 불리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이 널리 알려질 만한 문제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정치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폐모는 1인시위 장소를 어디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국회가 개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생각해서 국회 앞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개폐할거라고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당리당략의 싸움터가 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1. 10.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정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우리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 중지, 그리고 김대중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고 농성 30여일 만인 8월 2일, 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여 스스로 수감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하지만 우리는 지난 3일 만기출소를 앞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정부가 또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재구속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단병호 위원장을 재수감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노동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며, 이후 전개될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것을 뚜렷이 암시하는 사건이다.

3. 단병호 위원장의 구속 수감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이렇다할 정책 제시도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중들의 삶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소속조직들과 굳건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지난 10월 2일, 김대중 정부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하였다.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함으로써 천주교 사제단의 중재를 통해 ≪잔여 형기 이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자신의 약속을 깨고 민주노총은 물론, 이를 중재한 천주교까지 기만하였다.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현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단 말인가! 조직폭력배와 연계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고도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검찰 수뇌부와 경찰 간부들은 멀쩡한데,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헌신해온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을 옥중 구속시키는 현 정권의 철면피하고 반인권적 편파성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계된 신승남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부정 부패에 연루된 권력 핵심부와 검찰 간부들부터 구속 수사하라!

친인척은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하여 저질러진,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보여지는 비리와 부패는 현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성의 단면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안기관을 내세워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탄압공세를 퍼붓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구속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탄압기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내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미국의 군사적 패권 저지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해 왔다. 정부는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하고 1,3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늘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해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찰 폭력에 부상을 당했으며 수배, 구속되었다. 하반기에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쳐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서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김대중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격돌은 더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예상되는 대량 정리 해고와 헐값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 유출, 민중생존권의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저 앉아서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맞선 민중운동진영의 투쟁도 그 파고를 높여갈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들어 더욱 거세질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과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의 예봉을 미리부터 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 경고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단병호 위원장을 가둠으로써 꺾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을..... 노동자, 민중들은 더욱 강고하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과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월드컵을 핑계로 강화되고 있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에 맞선 빈민들의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 청년 학생들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 등, 우리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가진 자들의 더러운 이권다툼과 사리사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살리고 전체 민중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단병호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짓밟아 나선다면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역대 정권들과 그 말로가 다르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1년 10월 6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창립 대회개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장 이용대씨 선출

지난 10월 6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지역의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이 수원시 체육회관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4시 30분에 식전 노래공연이 진행되었다. 4시 50분 경기도지부(준) 노동위 부위원장인 강명용 동지의 사회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경기도지부 준비위원장 이용대 동지의 대회사에 이어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의장 백규현, 그리고 중앙당 천영세 사무총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지부(준) 사무처장 이정우 동지가 성원보고(총원 87명/ 사고 2명/ 재적 85명/ 참석 54명)를 하였고, 이어서 이용대 동지를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시작, 서기(김진선, 이재정)와 사찰(정용준, 김성욱) 지명과 회순에 대한 통과를 하였고, 이정우사무처장의 준비위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어 안건토론이 진행되었고 안건1 회계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안건2 도지부 규약제정에 관한 건 이 상정 만장일치로 통가되었다. 연이어 진행된 임원선출에 관한 건에서는 김현철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하였고, 선거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정우 선관위원이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이용대 후보 찬성 50/ 반대 5로 당선
부지부장 목영대 후보 찬성 54/ 무효 1로 당선
부지부장 박미진 후보 찬성 44/ 반대 10 무효 1로 당선
회계감사 곽장영 후보 찬성 50/ 반대 3/ 무효 1/ 기권 1로 당선
회계감사 김활신 후보 찬성 53/ 반대 1/ 무효 1로 당선
사무처장 편재승 후보 찬성 51/ 반대 3/ 무효 1로 당선

최지민기자
2001-10-08

민노당 학생위 건설을 위한 경기동부 추진위 건설

6일 11시 대수원교정에서 경기동부지역 100여명의 학생 당원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경기동부추진위≫ 힘차게 건설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준비되었으나 김건수 동지 구속과 석방투쟁으로 연기된 이후 새롭게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금 이땅에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날 발족식에 앞서 두가지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첫번째 강연 : 민족민주운동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절박성과 향후 건설전망 민족민주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중요성

두변째 강연 :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지위와 역할

마지막 순서로 추진위 위원장을 옹립하고 우리 경기동부지구 학생당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들었습니다.

이날 구체적인 결의된 과제는
1. 각 학교별 학생분회 건설과 이후 활동은 분회를 중심으로!!
2. 분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당원교육과 당원으로서의 실천
3. 당비 납부
4. 지속적인 당원확배가

주로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당적 체계를 준비하고 간부들의 준비정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설정되었습니다.

아직 당내 공식 체계는 아니지만 이후 이날 건설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와 협의하여 이후 경기도 학생위 건설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좀더 민주노동당이 대중속에 뿌리 박는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01/10/08
경기동부추진위

[민족충남대]10월 10일! 민주노동당 초청강연회

의장님을 적들에게 빼앗긴 분노를 가슴에 담고, 단위 조직을 정비하고 향후 투쟁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 민족충남대입니다.

완연한 가을!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충청총련 동지들! 모두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충대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만 학우들과 함께 학술문화 대동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현재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합법적인 진보정당 건설 관련되어 일꾼들과 2만학우들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 초청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2002년 대선을 비롯한 양대선거 전망과 민족민주 운동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기 전망과 계획, 그리고 대학생들에 요구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정당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번 민주노동당 초청강연회의 열기는 매우 뜨거우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현재 합법적인 진보정당 건설 관련해서,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10월 10일 2시

장소: 국제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민족 충남대 민주노동당 초청 강연회 성사

충남대는 현재 학술문화 대동제가 진행중입니다. 단대 학술문화 대동제는 비가오는 관계로 연기된 곳도 있지만 총학생회 차원으로 오늘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대선과 진보정당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은 2시 30분경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일꾼들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학우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선전사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은 민주노동당 정성희씨가 맡아서 해주셨으며 강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회 일꾼들이 중심이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면한 현 정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현 정세속에서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절박성, 현재 민주노동당의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 그리고 내년 대선과 향후 총선까지 바라보며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과제,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등등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일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이나 참으로 진지하고 높은 열의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면해서 우리운동이 이만큼 발전해 왔구나 하는 승리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투쟁과 합법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족충남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참여했던 일꾼들 스스로가 알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단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가져가서 구체적 결심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향후 대중적으로 다시금 이런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백만청춘들 추워지는 날씨 건강 주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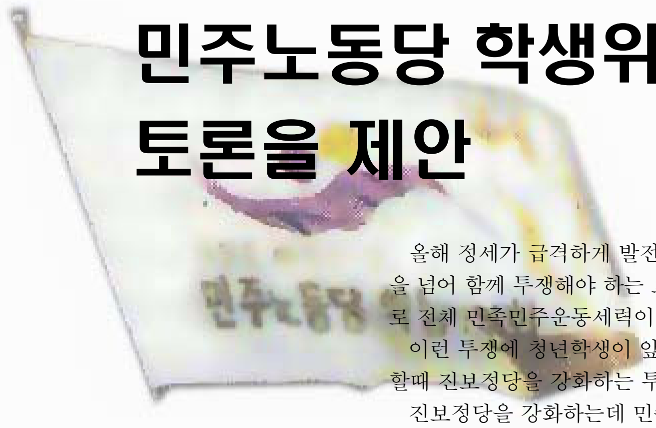
우천으로 인해 대동제 준비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하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늘 폐막제 학우들과 힘차게 마치고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민족충남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산하

32대 반갑습니다! 민족충대 자주적 총학생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에 대한 토론을 제안



올해 정세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결과 화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결을 넘어 함께 투쟁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은 진보정당을 강화하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단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에 청년학생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이 한국변혁운동사에 가져왔던 지위와 역할을 상기할때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청년학생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진보정당을 강화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서 한 계급의 요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 계층의 대중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민중들이 투쟁하는 자리에 민주노동당이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세상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9일에는 충남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캠퍼스별로 민주노동당의 분회를 건설하는데 그와 더불어 캠퍼스내에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부문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며 그 형태가 캠별 학생위원회라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충남지부 학생위원회를 건설하고 그 산하단체로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당 소속의 학생위원회는 모든 사상과 정견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할수 있는 대중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단위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단국 학생위원회에서는 충청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운동세력과 단위 학교에 민주노동당 강화의 문제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학생운동세력의 대의체계(충청총련, 대전 연석회의, 충청학협(?), 다함께 등등)여도 좋고, 아니면 한 단위학교여도 좋습니다. 충청지역에 있는 학생동지들이 다 같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진행될때 더불어 전체 학생들의 토론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소속의 학생위원회는 학생들의 대의체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체계의 입장은 큰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부분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조직적인 단결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동세력내부의 입장들이 필요합니다.

정당활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단위학교나 동지들에게는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변화와 발전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가 민주노동당을 가입하지 않아도 토론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것 또한 민주노동당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토론과 비판은 사상투쟁의 척도입니다. 토론과 비판이 막힌 조직은 대중들에게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세계변혁운동의 역사나 한반도의 변혁운동 역사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충남대에서 민주노동당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남대 동지들만이 아닌 충청지역에 있는 모든 단위 학교에서 토론을 활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토론을 진행하실때 기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세력의 단결과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할 것에 대해
- 청년학생이 선봉해서 민주노동당을 강화할 것에 대한 입장

충청지역에서 많은 학생위원회가 건설되어서 얼굴도 자주보고 투쟁도 함께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청년단국학생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시기로 다들 바쁠 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투쟁을 잘 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혁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세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세를 뒤쫓는 것이 아닌 정세를 이끌어가는 청년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단국만이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며 충청지역에 있는 청년학생들이 다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도 선거공고가 이미 난 상황이고 매년 선거시기마다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어용과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진행하기 위해 결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거에서 좋은 결과 가져오셨으면 좋겠구요. 설사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도 정파를 떠나 단결하는 것이 21세기의 청년학생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건)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10월 6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주당 *** **위원장은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최근 오는 20일과 21일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은 우리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민의를 거스르게 하는 것으로써 지금 각계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이즈미일본총리로 말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군국주의를 공공연히 고취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광분하는 군국주의광신자입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는 집권한 첫날부터 강력한 일본건설을 떠들어대면서 이른바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군사대국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군사비지출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를 차지하는 일본은 헌법에 규정된 국토방위를 위한 무장력동원을 확보하기로 한 세계3위의 강대한 현대적 무력과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범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핵대국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막대한 양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과 장비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를 시험발사함으로써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군국화와 핵무장화책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 그 위험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지난 8.15패전일에 즈음해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나라 민중들이 그처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조를 비롯해 1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군국주의광신자로써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고이즈미총리의 비호두둔하에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주관하는 단체까지 나와 참배를 정치화, 관례화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특히 일제침략역사를 심히 왜곡하면서 자라나는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침략사상을 주입하려고 책동하는 우익단체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우익단체가 왜곡서술한 중학교용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거부했을뿐 아니라 그것이 시판되는 것을 묵인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고이즈미총리는 잘못했다는 말한마디조차 않고 뻔뻔스럽게 방한하려고 해 우리 민족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일본총리가 방한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 민중의 반일감정을 어떻게 하나 누잦혀보려는데 그 범죄적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힘있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총리가 우리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방한을 단행한다면 보다 큰 항거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발족에 부쳐

구국의 소리 10월 1~2일

최근 청년학생들이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의 발족을 선포하고 그의 정치활동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은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봐요.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의 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는데서 누구보다 앞장섬으로써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 통일의 선봉장으로써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땅에서 사람들의 화제거리의 하나는 이회창에 대한 얘기인듯 싶다. 대학가는 물론 지하철이나 다방, 심지어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살기에 바쁜 거리의 노점상 아줌마들도 이회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도나도 뒤질세라 한몫씩 끼운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얼마번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의 발족을 선포하고 앞으로 그의 정치활동을 계속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제보전화받기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하겠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온 민족, 온 국민이 지지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북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반통일분자, 매국노, 반역자이다. 그는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바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남북정상회담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비하던 이회창이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하면서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이제 이회창은 온 겨레, 온 세계가 적극 지지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돼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고 시비함으로써 식민지정견으로써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어디 그뿐인가. 이회창은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허구적이며 반민족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 지난 8월에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의 의로운 활동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문제시하는 괴이한 소동을 벌인 것도 이회창이다. 그런가하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합리적인 통일방안도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통일을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이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통일하려는 이회창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김윤홍씨는 이회창을 필두로 하는 이땅의 사대주의세력들은 부시정권의 민족앞길가로막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평했던 것이다. 정말 이회창은 못된 짓만 골라한다.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조국통일도 바랄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민중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언제가도 벗어날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수 있겠는가.

제반 사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해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분기해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작업은 대민홍보활동이다. 청년학생들은 이회창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낱낱이 조사장악해서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총련이 이번에 발족한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의 역할을 높여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제보전화받기운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기로 한 것은 사뭇 중요하다 하겠다.

각계 민중과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반이회창투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청년학생들이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투쟁해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통일민주세력의 단결을 강화해서 이회창을 종국적으로 매장할수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단호히 제거하고 역사의 오물통에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구국의 소리 9월 28~30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일본이 ≪에이치2-에이≫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류는 일본반동지배층의 해외팽창야망과 재침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규탄배격하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네, 이미 보도된것처럼 최근 일본은 가쿠시마현의 가네다우주센터에서 ≪에이치2-에이≫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의 로켓발사시험은 일본반동지배층의 해외팽창야망, 재침책동이 정책화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총리 고이즈미는 자위대의 해외파병부대들이 기본군사작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적조치를 해지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일본방위청이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을 대폭수정해서 2005년까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추진을 위해 책동하고 있구요. 이와함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보면 지난 8월 일본총리 고이즈미를 비롯해서 지배층내 우익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군국주의부활을 목적한 한것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움직은 매우 심상치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치2-에이≫로켓발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조치의 해지문제, 방어계획대강을 대폭수정해서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추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 등은 일본반동지배층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해서 해외침략야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보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계획대강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피동적인 방어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질서형성자로 행동할 것을 제창하면서 육상자위대의 기동력과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능력,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장거리작전능력을 높여서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꾀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난시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과 태도를 표명해오던 일본이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 관한 일미공동기술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공공연히 떠든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체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립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구상이 실현가능성이 거의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지향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가 지금 실천단계에 돌입하는 걸 보면 자위대무력의 무력을 공격형의 무력으로 강화하고 우주의 군사화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군사적패권을 쥐고 독자적으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없고 해외침략을 하려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실증해주고 있어요.

사회자 : 지금 일본은 재침열기에 들떠서 무분별하게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반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일본의 방어계획대강에도 명백히 밝혀져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불안정의 첫째가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군사대국화책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한반도에서의 유사시를 목표로 하고 대강을 작성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반동지배층은 방어계획대강에 따라 침략의 총끝을 한반도에 돌리고 한반도와 가까운 서일본지역에 자위대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요한 경우 무력을 한반도쪽로 신속히 이동전개시키기 위해 항공수송대를 강화하고 통신체계 등을 수립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반동지배층은 유사시 자위대무력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해 재침의 꿈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일본의 재침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 민중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일본의 재침야망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는 겁니다.

김현규 : 네, 무엇보다 노농운동단체들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책동에 본질과 그 위험도, 그리고 우리 민중에게 가져다줄 악결과를 노농대중속에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도록 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시기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던 과거 피비린내 나는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농대중속에 반일계급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반일투쟁에서 언제나 주도적역량으로, 투쟁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도록 그들을 올바로 조직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밖에도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반일투쟁의 지속성과 완강성을 보장하며 그것이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확산되도록 투쟁의 대중화를 이뤄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투쟁을 일제가 지난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강도적행위를 철저히 폭로단죄하고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시켜 나감으로써 일본의 재침야망을 꺾어버리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각계층민중과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그 승리를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노농운동단체들은 일본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올바로 조직전개함으로서 전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반통일분자들의 무분별한 행태

구국의 소리 9월 28~30일

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반세기여만에 처음있은 남북해외동포들의 통일대행사로 6.15공동선언실천의지를 과시했고 우리 겨레의 가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높여준 것으로 해서 참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회창 한나라당패당들을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이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와 그 의의를 희석시키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어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윤정원씨, 오일씨 모시고 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 그리고 자민련족속들이 통일에 역행하는 못된 짓만 하고 있어 내외를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그들이 놀아난 꼴만 봐도 그걸 잘알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 등어중이떠중이들이 어떻게 놀아났는지 그 양태부터 먼저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 일 : 한마디로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이회창의 한나라당과 자민련등과 같은 족속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이나 겨레의 통일, 통일위업도 이루어낼수 없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축전을 방해하기 위해 어떻게나 못되게 놀았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행태를 보십시요. 애당초 평양통일축전자체를 반대해온 그들은 축전이 성과리에 끝나자 축전장소와 방북인사의 방명록서명문제를 걸고들면서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느니 사법처리해야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는데요. 나중에는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했다는 임동원통일부장관까지 걸고들면서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키는 망동을 부렸어요.

윤정원 : 헌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들이 얼마나 혹심한 통일훼방꾼인가 하면 북의 남북장관급회담제의마저 시비질해 나선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일 북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자고 남측에 제의해왔죠. 이같은 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애국적이고 건설적인 제의로써 온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헌데 고약하기 그지없는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북의 통일지향적인 대화제의가 남쪽의 어느 일개 장관을 구출하기 위한 의혹이 짙다느니 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느니 하고 험담을 늘어놨는데 그래도 정치를 한답시고 무어진 정당이라는데 통일대화제의가 국사에 관한 문젠지,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지, 일개 장관에 관한 문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까. 이쯤되고 보면 한나라당무리들이라는 것이 통일은 고사하고 정치도 모르는 알짜 무식쟁이들만이 서식하는 반역집단이라 할겁니다.

사회자 : 반통일에 미칠대로 미친 이회창패거리들의 입에서 무슨 바른 소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들이 떠벌인 언동을 갖고 좀더 구체적으로 애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우선 한나라당패거리들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인사들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점부터 애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 일 : 그거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궤변이지요.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걸어온 장본인이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이회창 한나라당족속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남북관계를 끔찍이나 생각하며 정치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네들이 북을 주적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반북대결의 언동만 일삼아온 지난날의 일은 들지 않더라도 이번 8.15통일대축전을 앞두고도 얼마나 못된 짓을 해왔습니까. 8.15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공동선언의 성과적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통일축제행사를 벌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였습니다. 그런만큼 온 겨레는 이북에 펼쳐진 통일대축전에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냉전보수세력은 남측대표들의 방북을 막아 통일축제를 깨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했고 그것이 저들의 뜻대로 안되고 남측대표들의 방북이 실행되자 이번엔 그들이 축전행사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심술을 부리며 강짜를 썼지요.

사회자 : 방북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마트면 이번 행사가 온 겨레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수 있는 상황까지 조성됐다고 하던데요.

윤정원 :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을 이루려는 순수한 애국의지를 안은 남쪽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통일대축전 개폐막행사 참석으로해서 성공적으로 거행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로해서 축제는 민족이 분열된 이래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하고 우애와 정을 나누는 민족대화합의 장으로 되고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역사적인 통일대잔치로 장식할수 있었고 남북민중들의 혈연적 유대는 더욱 두터워졌죠. 그리고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데도 매우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 일 : 이번 남측대표들의 축전참가로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주었지 나쁜 영향을 준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만은 통일을 위해 장한 일을 한 사람들을 게거품을 물고 헐뜯다 못해 사법처리해야한다고 앙탈을 부렸는가 하면 통일대축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측과 해외동포들을 극진히 환대해준 이북까지 걸고들면서 헐뜯고 시비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망동입니까.

사회자 : 그렇죠. 헌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걸고 든 행사장소 역시 아무런 문제로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렇죠. 이회창패거리들은 통일대축전장소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이라해서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었는데요.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말하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는 통일대강이지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이 헌장은 칠천만 우리 겨레는 물론이고 세계 양심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어요. 이 통일대강을 받들어 통일성업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통일의지에 떠받들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건립됐는데요. 민족통일대축전을 그 뜻깊은 장소에서 하는건 어떤 경우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기 남쪽의 적지 않은 정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이 북의 정치행사들에 참관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였다는 것을 감안할때 장소는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애당초 8.15평양통일축전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파탄시키는 것이 목적인 이회창패거리들은 이북땅 그 어디에서 축제를 벌인다해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발작증을 일으켰을 거예요.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건 이른바 만경대방명록파문인데요. 만경대로 말하면 열렬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들을 배출한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성지잖아요. 만경대생가에는 일찍이 미제해적선 ≪셔먼호≫를 격침시킨 김응우선생님과 한평생을 반일애국에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그리고 14살의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셔서 20성상 백두밀림, 만주광야에서 풍찬노숙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수고 조국을 광복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비롯해서 만경대일가분들의 투쟁사적이 깃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으로해서 만경대는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의 상징으로 만방에 빛나고 있습니다. 민족자력으로 조국을 광복하신 김일성주석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실현하자는데 다른 과제는 없단 말이예요. 헌데 이걸 문제시하니까 그게 어디 될말입니까.

사회자 : 광복직후 전국에선 백범 김구선생도 만경대를 방문해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만경대를 참관했지만 그에 대해 누구도 어디에서도 문제시하지 않았지요. 유독 이땅에서 그것도 6.15공동선언이 이행단계에 있는 오늘날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가 까박을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들에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퇴폐무능한 이조봉건관료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제의 고등계형사들보다 더 악착한 검사서기로 있으면서 항일독립운동자들을 대량 학살한 애비 이홍규의 핏줄을 이어받아 그 역시 신친미주구로 악명을 이어받은 이회창이고 보면 만경대애국정신, 민족자주정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회창패거리들이 방북인사들의 의로운 행을 그처럼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회창패거리들이 방북인사들이 국민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한 것도 흑백을 전도한 넋두리지요.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갖은 비열한 짓을 하던 장본인이 말이예요. 어느 사이에 내부갈등을 우려하는 천사로 둔갑을 했는지 정말 사람들을 웃기는 일이죠. 바른대로 말해서 이회창패거리들이 내부갈등에 대해 걱정을 한게 아니라 그걸 극대화하기 혈안이 돼 왔다는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보수언론과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세력들을 추동해서 방북인사들을 친북세력으로, 범죄자로 몰아붙이면서 자주통일세력과 일반 국민들사이에 불신과 이간을 조성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죠. 이회창패당의 그 독기어린 광기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민내부갈등의 주범은 다름아닌 이회창패거리들임을 웅변해주고 있잖아요.

사회자 :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축전과 관련해 한나라당뿐 아니라 김종필을 비롯한 자민련 역시 한나라당못지않게 훼방을 놀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6.15남북공동선언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행해야할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에 맞장구를 치는건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김종필을 필두로 한 자민련은 임동원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나돌자 자진사퇴시안까지 그어 놓으면서 위협했는가하면 친북세력의 방북단이 북의 대남통일전략에 이용됐다느니 뭐니하고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게 어디 통일하자는 사람의 입장과 자세냐 하는 거예요.

윤정원 : 개눈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자민련족속들의 눈엔 순수 민간단체대표들이 친북세력으로 보이고 또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통일방북단이 누구의 통일전략으로 보이는가 보죠.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통일전략에 동조하는 작태야말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월계관을 써보려는 이회창일당의 정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돼서 결국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목에 거는 것으로 됩니다.

사회자 :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그에 추종하는 자민련 등 어중이 떠중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도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각계 국민은 반민족, 반통일역적인 이회창패거리들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반통일분자들의 무분별한 행태≫ 윤정원씨, 오일씨 모시고 얘기드렸습니다.

통일은 대세의 흐름입니다. 대세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습니다. 이회창패당들의 반통일책동은 대하의 흐름을 보자기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가는거죠. 이회창반통일역적들이 아무리 책동해도 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 것입니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재발의서

발의자 :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산하 애국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 곽상욱 부총학생회장 김미복

발의 내용 :
2001년 10월 20일경
서총련 산하 대학교에서
(시일과 장소는 대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결정했으면 합니다.)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간부충원 인선≫
≪청년학생이 진보정당에 가져야 할 입장과 자세≫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 결의≫를 안건으로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재발의합니다.

발의 사유 :
지난 4월 7일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는 ≪통일 단결에 기초한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부충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총련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한총련운동에 충실히 복무할 의지를 가질 모든 동지들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로 폭넓게 참여시킨다.
2. 간부 충원의 절박성과 실천투쟁의 화급함을 반영하여, 간부 인선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학교 중앙운위 또는 지역총련의 추천과 중앙상임위의 인선 결정으로 간부 인선을 확정짓는다.
3.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모집 공고를 내고, 4월 중순 안에 한총련 중앙집행위 간부인선을 마무리짓는다.

그러나 한총련 출범식을 맞이하는 5월말에 이르도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이행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중앙상임위원회의 상급 기관이자, 간부인준의 최종 권한을 가진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임시 중앙위원회가 2차례 소집되어졌으나 2차례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장 대중적이며 한총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9기 한총련 내의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재발의합니다.

– 애국 순천향 일꾼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한/총/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4년만의 자주적 총학생회 건설의 순간에 한총련 진군가를 부르며 흘렸던 눈물의 깊이입니다.
애국 순천향 일꾼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한/총/련 사수에 대한 의지는, 1학기 학자 투쟁을 진행하며 보았던 학우님들의 눈빛과 한총련 대의원, 그 자랑스런 이름에 대한 책임입니다. –

지난 9월 10일 애국 순천향은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임시 대의원 대회는 발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의시기를 놓쳐 사실상 발의자체가 어려웠던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혼란과 사실상 성사여부의 문제제기까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동지들에게 들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애국 순천향은 하반기 대의원대회의 중요성만큼 지난 9월,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발의하는 과정에서의 단위의 소극성과 준비부족, 관성을 가슴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심을 담아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재발의합니다.

애국 순천향은 지난 9월,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발의하기 전, 상반기.방중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였었습니다.

하나 하나의 투쟁을 되짚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뼈를 깎는 반성의 과정이 되었고, 때론 가슴 벅찬 모범들을 다시 한번 짚는 장이었습니다.

투쟁을 평가하는 속에서 나타난 성과나 한계 그 모든 것이 우리 순천향 운동과 나아가 한총련 운동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와 오류는 철저히 혁신하는 자세로 남은 하반기를 투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평가 안에서 결의한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발의는 애국 순천향 전체 일꾼들의 단위학교부터의 혁신과 진정 한총련을 나의 조직으로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년만에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상반기를 학우님들과 함께 투쟁해오면서 가장 기층의 학우들의 의견과 생각들에 기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절실한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 애국 순천향 일꾼들 한 명, 한 명은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통신에 총화드렸듯이 학교 당국과 어용 총대의원회가 준비한 대의원 총회라는 공간을 학우들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반기 또한 학우님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적 학생회..

자주적학생회는 학우들의 자주적 요구에 기반한 상층의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하고 그것을 다시 학우들에게 돌려주는 투쟁과 사업이 있어야하며 올바른 대중관을 가지고 올바른 과녁을 가지고, 대중에 철저히 기반해 대중의 자주성을 고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자! 이야기하자! 헌신하자!

또한 대중에 근거한다는 것은 단지 학생회 간부들 입안의 구호로만 외쳐져서는 안되며, 자기 대중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헌신하는 그것이 진정한 대중에 근거한 사업일 것입니다.

백만 대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 역시, 그 이름답게 민주적인 회체계안의 가장 대중적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9기 한총련내의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상의지적 단결을 더욱 간고이하여 견결한 투쟁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애국 순천향부터 말로만 그치는 허공에서만 울리는 반성과 혁신이 아닌, 주체에서부터의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결의하면서 한총련 대의원동지들께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발의를 다시 한번 절절히 호소드립니다.

9월 10일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발의하고 다시 재발의를 하기까지 애국 순천향은 한총련 중앙간부들과 충청총련 중앙간부들에게 간담회등의 논의의 공간을 요구하고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애국 순천향에 소극성과 관성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총련 중앙간부들이나 충청총련 중앙 역시 비록 한 단위학교라 할지라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단위학교의 의도를 알아가는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총련 규약에는 분명히 민중집중의 조직운영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집중제란 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하기에 애국 순천향과 한총련 중앙, 충청총련 중앙 모두의 모습은 한총련의 민주집중제를 무시하는 것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재발의를 하고 한총련 중앙, 충청총련 중앙과 단위학교와의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논의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상임위 동지들과 한총련 의장님께서도 한총련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한총련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상반기 결정사항을, 결정된 사항 그대로 주도적으로 집행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대의원 대회의 결정사항은 어떤 다른 판단이나 사정이 우선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9기 한총련의 문제를 9기 안에서 풀지 못한다는 것은, 발전은 있겠지만 10기 한총련 역시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층 대의원들이 함께 모여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속에서 서로 허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한 혁신자의 자세로 주체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혁신점들은 실천을 통하여 반드시 고쳐나가겠다는 것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 결의하는 장으로 된다면 한총련의 조직사상적 단결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투쟁에 대한 정확하고 허심한 평가가 있어야 이후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가를 회의가 아닌 이후 투쟁을 예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하반기 투쟁이 시급하고 중요한만큼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속에서 한총련 중심의 하반기 투쟁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국 순천향은 미약하긴 하지만 의대 안의 ≪다함께(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추석이 지나고 투쟁주간을 정해 반미.반이회창.학내사안 선전전, 간담회등의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보정당에 대한 고민이 많이 모자라고 한총련 차원의 입장이 뚜렷이 없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간담회등도 역시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총련 내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각 단위학교 별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과 투쟁이 단일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총학생회실 문을 두드리는 학우님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어렵게 준비하고 진행했던 전체 체전이 끝나고 학우님들의 입에서 ≪백두대간 총학생회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 체전 뒷풀이를 하다가 총학생회 일꾼들에게 술 한잔 따라 주고 싶어 올라왔다는 과 학우님들은 ≪힘들어도 힘내시구요. 잘하시리라 믿어요. 함께 할께요. 총학생회 여러분 너무 멋져요.≫하며 총학생회 일꾼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작지만 가슴벅찬 학우님들의 사랑과 믿음이 애국 순천향이 자주적 학생회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고,한총련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애국 순천향의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재발의 안을 보면서 많은 동지들이 우려를 나타내실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언제 한총련이 당면한 투쟁들을 간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는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을 더욱 결의높게 가져가는 토대를 만드는 투쟁의 과정으로 될 것이며, 한총련 내의 크고 작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마찰등 단결을 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해결하고, 한총련의 통일단결과 혁신, 투쟁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이 될 것을 애국 순천향은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사될 것인가하는 우려는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바꿔 세웁시다.

논쟁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는 수백 대의원들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 세웁시다.

한총련이 가는 길은 백만 대학생이 가는 길입니다.

한총련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한총련이 가는 길은 역사의 정방향입니다.

그 한총련의 가장 선두에 자랑스러운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애국 순천향은 한총련과 그 선두에서 탄압을 이겨내며 당당히 서 있는 한총련 대의원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한총련의 혁신과 단결의 결심에 애국 순천향이 가장 선두에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적인 문제로 어려우신 대의원 동지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우편 : tongil96@hanmail.net (애국 순천향 총학생회장)

전화번호 : 041-530-1468 (애국 순천향 총학생회)

나의 사랑! 나의 조직!

한/총/련 그 이름답게!!

미국의 침략전쟁반대,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반대 및 한국정부의 전쟁지원반대를 위한 인천시민회의 결의대회

-일시:2001.10.13(토) 오후12:30
-장소:미군기지 구정문앞

전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칸 민중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한 미국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고,이를 계기로, 군사재무장,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반역사적인 방한 추진을 적극 저지하고,어떤 형태든 한국정부의 무의미한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인천시민들의 결의를 모아봅시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 걷기대회





전국 미군기지의 심장부, 용산 미군기지를 우리 땅으로 되찾기 위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화약고로,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온갖 학살과 범죄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주한미군 기지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내는 데 모든 단체들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벌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기지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용산지역의 주민들이 이 운동의 주체로서야 하며, 그러하기에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참여시키는 활동에 중심을 두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우리의 힘으로, 서울 시민의 힘으로 돌려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산 지역주민들을 한 사람씩 만나는 데부터 시작합시다.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 걷기대회≫에서부터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 첫발을 제 단체들과 함께 떼고자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투쟁에 나서는 모든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의의
- 용산 지역주민들과 미군기지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
- 용산 미군기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용산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를 가진다.
- 용산 미군기지 반환투쟁을 사회 여론화하여, 향후 범국민적인 투쟁을 행사 참가자들과 결의한다.

2. 참여단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 걷기대회 준비위원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 벗/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서울대 · 중앙대 · 고대 운동본부/ 경희대 총학생회 · 단국대 총학생회/ 이대 실천단 · 숙대/ 외대 동양어대 · 서양어대 학생회, 국민대 사회대 학생회)

3.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 (일) 용산역 광장 → 용산 미군기지 → 이촌 한강시민공원

용산걷기대회준비위

[충청총련] 주체사상 토론회(가)

0. 들어가며

기간 6. 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열려진 정세에 발맞추어 북을 바로 알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를 진행 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기간 충청총련 또한 상반기 초반부터 신이북 바로알기를 진행하자 이야기도 했었고, 주체사상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기하였지만, 응당 가져가야 할 수준으로는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커다란 시계추는 아무리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법! 각계각층의 민중들의 6. 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대단결 하자는 공통된 사상감정은 이후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높은 수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 · 객관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제 올해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연대연합을 이뤄내었고 그 힘으로 8.15민족공동행사를 힘있게 치러내었습니다.

7천만 겨레의 대단결, 대단합 속에서 치러낸 남 · 북 · 해외의 지역통일축전과 평양에서의 민족공동행사의 성과로 기간 단절되었던 정부정단간의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바로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의 힘이요.. 그 속에서 가장 성실히 6.15남북공동선언 지지이행의 노력을 경주한 자주, 민주, 통일애국 세력들의 힘으로 개척한 역사적 성과물일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정부정당간의 대화와 교류가 정상화 된 이 시점에서 6. 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위대성은 다시금 만천하에 증명되었으며, 통일투쟁에 처음 나섰건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간에 조국통일! 그 승리의 확신은 민중들의 가슴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동적으로 열어놓은 6. 15 공동선언 실천의 문을 조국통일로 가는 결정적 문까지도 열어제칠 수 있는 단계로 승화 발전 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욱 높은 차원에서의 6. 15 공동선언의 지지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연합의 틀거리를 공동의 투쟁과 사업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더욱 철저히 막아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 이북과 관련되어 금기시 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갈 이북 민중들의 모든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이 우리 청년학생들 앞에 놓여져 있다 했을 때 북을 보다 잘 알고 열려진 정세에서 기간 금기시 되어 왔던 북의 주체사상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함께 연구하고 탐구해 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 주체사상 대토론회를 진행하였던 단위들의 경험과 그 속에서 모범을 소중히 받아안고 충청지역에서도 각계각층의 대중들과 함께 주체사상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1. 의의와 목적

큰틀에서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북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사상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한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이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간 대중적으로 이북을 올곧게 바라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들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북을 바로 알기 위해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고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는 그들의 사상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주체사상이라는 얼굴없는 괴물(?)을 대중들 속에서 알려내자는 것입니다.

기간 관제교육의 틀속에서 북에 대한 빨갱이라는 인식!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왜곡, 음해, 거짓으로 인해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체사상이란 말만 나와도 눈이 휘둥그래 지는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주체사상에 대해 금기시 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는 모습은 분단의 아픔속에서 파생된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정세는 이북에 대해 금기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올곧게 있는 그대로 알고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속에서 이번 충청지역에서의 주체사상 토론회는 기간 이 사회에서 금기시 해왔던 주체사상이라는 얼굴없는 괴물을 대중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 주체사상 토론회 일정(가)

일시: 11월 1일 오후 2시

장소: 민족충남대학교 국제문화 회관

3. 주체사상 토론회 주제문 기획안

주제1

●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 그리고 내용에서 구성체계는 어떠한가?

(주체사상이 역사적 측면과 그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발제: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님) 선생님 - (가안)

주제2

●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주체사상의 현재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발제: 안재구 선생님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님) - (가안)

주제3

●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을 대했던 모습들과 지금에서 주체사상을 어떤 자세와 관점으로 대해야 하겠는가?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을 대했던 과거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 보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어떤

자세와 관점으로 다가서야 하겠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발제: 서경원 (전 국회의원) - (가안)

4. 토론주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지향적으로 이북사회를 인식하기 위한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패널: 홍석하(연기사랑 청년회 회장님, 한청 충청지부 의장님), 최규협(민주노동장 자통위위원장님),

김창수 (민화협), 지역 인사에서 섭외계획입니다. - (가안)

5. 전체 행사 당일 진행순서

-사회자 개회선언

-주제문 발제

-주제토론 진행

-질의 및 응답시간

-패널들의 한마디

-사회자 폐회

부마항쟁 22주년 기념 토론회

1. 의의 및 목표

– 22년 전 우리대학을 시작으로 전국에 휘몰아 쳤던 민주화의 함성을 지금 시대정신에 맞게 조명해 보고, 현시기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는 대학과 대학인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 민족효원의 진정한 역사성을 부마항쟁에서부터 각인하는 자리이며, 시월정신을 이어 민족의 과제인 조국통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토론해보는 자리입니다.

– 지역 각계각층의 자문과 협조 속에서 우리대학의 역할과 비중을 재조명해보는 자리입니다.

2. 발제내용 및 토론과제

1. 부미항쟁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

– 항쟁 당시의 배경과 경과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의미를 재조명 해 보는 내용

2. 시월에서 통일로!

현시기 대학(대학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 당면한 정세에서 요구되는 대학과 대학인의 시대적 소명을 이야기하고 현시기 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밝힌다.

3. 기조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발제 1. 박철규(부산대 사학 81, 현 동아대 사학과 강사)

발제 2. 학생대표 1인

▶ 토론자 :

1. 이상록(부산대 법대 74, 현 민주공원 내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대행)

2. 허 열(부산대 정외 79, 현 부산대 정외과 강사)

3. 학생대표 1인

4. 시간 및 장소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14:00

– 부산대학교 재료관 2층 환경대학원 세미나실

주최 / 부산대학교 33대 총학생회

후원 / 부산 민주공원

부마항쟁 22주년 기념 전시회

▶ 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당시의 사진자료 및 각종 선언문 / 신문 보도자료 전시회

▶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기록물과 재편성한 애니메이션 자료 시사회

▶ 일정 및 장소

2001년 10월 11일~12일(양일간) 중앙도서관 로비

2001년 10월 16일 구도서관 항쟁발원지 표지석 주변

부마항쟁 22주년 기념 항쟁 유적지 탐방

▶ 부마민주항쟁 22돌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운동과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해 민주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을 함께 나누고 결의를 다지는 한마당으로 만드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민주공원 내용 발췌)

▶ 우리대학 항쟁의 진원지를 학우들과 함께 확인하고 지역단체와 함께 22주년 기념식을 의미있게 진행한다.

▶ 사업 개요

1. 행사일시

2001년 10월 16일(화) 오후 1시~6시

※ 우리대학은 2시까지 구도서관 항쟁진원지 표지석 앞에 집결

2. 탐방코스

부산역 – 부산대 구도서관 항쟁진원지 표지석(약식기념식 진행) – 중도 민주항쟁탑 – 산업도로 – 교육대 – 부산극장 앞 PIFF광장 – 백산기념관 – (용두산공원 4.19기념탑) – 카톨릭센터 – 민주공원

3. 외부 참가인원 : 50여명 예상

▶ 행사내용

1. 부마민주항쟁(마산지역 제외)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하되 백산기념관, 용두산공원, 카톨릭센터는 민주항쟁 관련 역사탐방지라 보고 고려의 대상을 넣는다.

2. 부산대 교정의 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 앞에서 간단한 추도행사를 병행.

(주변 플랑카드 선전 및 사진자료 전시회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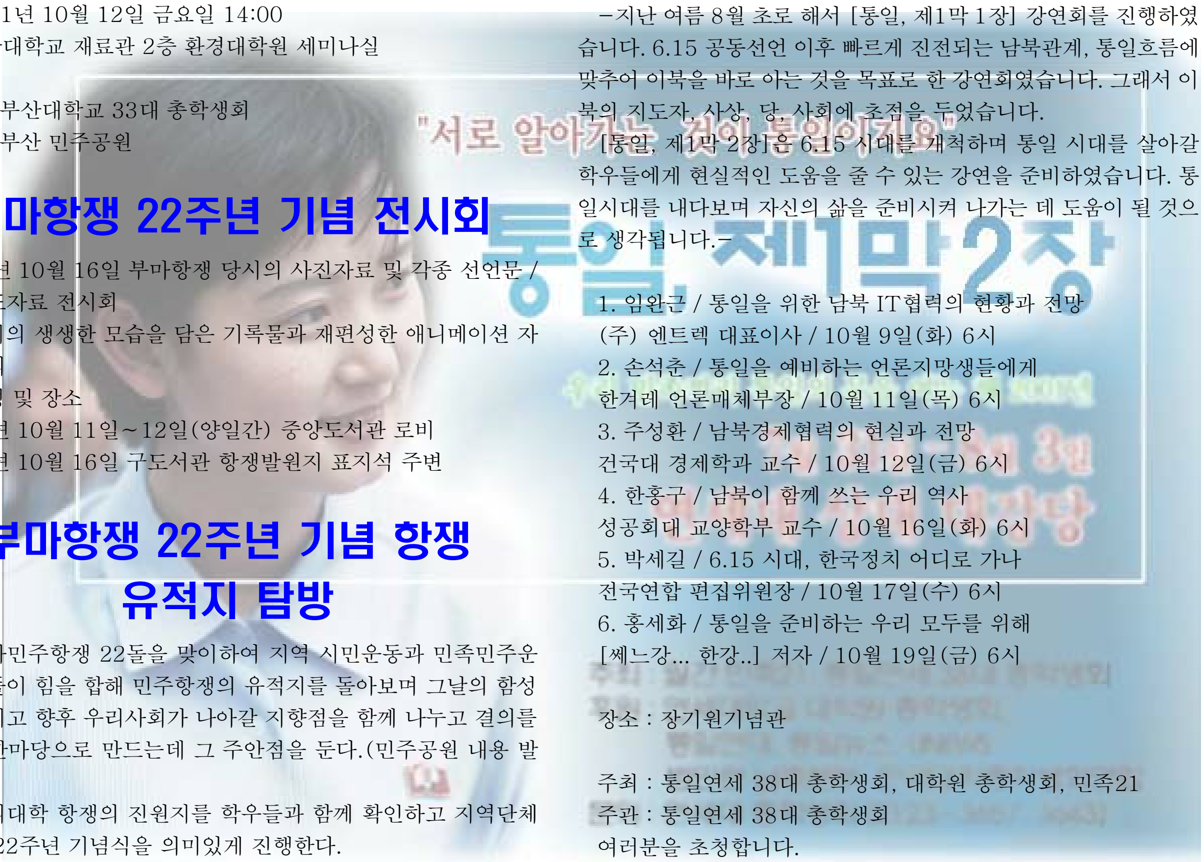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33대 총학생회 /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 부대신문사 / 민주공원

통일강좌 제1막2장

통일시대를 살아갈 학우들을 위해

–지난 여름 8월 초로 해서 [통일, 제1막 1장]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빠르게 진전되는 남북관계, 통일흐름에 맞추어 이북을 바로 아는 것을 목표로 한 강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북의 지도자, 사상, 당, 사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통일, 제1막 2장]은 6.15 시대를 개척하며 통일 시대를 살아갈 학우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일시대를 내다보며 자신의 삶을 준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임완근 / 통일을 위한 남북 IT협력의 현황과 전망

(주) 엔트렉 대표이사 / 10월 9일(화) 6시

2. 손석춘 / 통일을 예비하는 언론지망생들에게

한겨레 언론매체부장 / 10월 11일(목) 6시

3. 주성환 / 남북경제협력의 현실과 전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10월 12일(금) 6시

4. 한홍구 / 남북이 함께 쓰는 우리 역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10월 16일(화) 6시

5. 박세길 / 6.15 시대, 한국정치 어디로 가나

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10월 17일(수) 6시

6. 홍세화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쎄느강... 한강..] 저자 / 10월 19일(금) 6시

장소 : 장기원기념관

주최 :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민족21

주관 :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두고 떠나신 마음

구국의소리 9월 29일~10월 1일

두고 떠나신 마음 **장에 머물러
낮에도 밤에도 샘물은 끓고
두고 떠나신 마음 합숙과 가정들에도 따사로와서
그이는 오늘도 여기 철의 도시에 **진다

허나 **에서는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 한끝을
지하깊은 막장에 그대로 두고 가셨다 이야기하고
서해갑문건설자들은 그이의 마음 한끝이
대자연개조의 격전장에서 전진의 깃발로 불타고 있다 하네

그리도 다정다감하시고
그리도 매사에 자상하신 분
그리도 담대호방하시고
천리도 순간에 꿰뚫어보시는 분

그이 한번 웃으시면
흐렸던 하늘도 활짝 개이고
그이 주먹을 불끈 틀어쥐시면
천하 온갖 원수들이 숨을 딱 멈추나니

그이 청춘시절에 자신의 마음 한끝을 튼튼히 이어주신 철의 진지
여기 강철로 우리 당을 옹위해 가는 영광스러운 초소에서
내 오늘 새삼스러이 가슴 뿌듯해지는 생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모시어
이제는 우리에게 세계도 우주도 커보이질 않는구나

주체 90, 9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퇴직교수 김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통일태양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시내 통일운동가들의 주최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한 그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일 출감예정인 단병호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9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영장신청은 지난 9월 8일 자진출두 당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어기는 것으로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단병호위원장이 재차 구속된다면 현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정부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의 거세찬 반정부투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개신교 20여개 단체는 9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앞 광장에서 신문개혁기독교연대발대식을 갖고 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조선일보 등 족벌수구언론을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수임명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해 학교측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덕성여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이 재단외 이사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회창은 대통령감이 못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차기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철학도 없고 대통령으로써 갖추어야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회창은 또 철저한 친미친일분자이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문제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면서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꼽는다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수 없다. 또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에 항변한마디 안하는 자를 대권의자리에 앉힌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중식민지로 전락할수 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지금 사회에서 반이회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이회창은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통일운동에 몸담고 있는 김모씨는 만약 이회창이 대권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반공분자, 승공통일론자이다. 그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인물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침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회창에게 대권을 넘겨주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해야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9월 29일 이른바 통일대축전파문과 관련해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 67살 김규철씨 등 범민련관계자 6명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하에 이어 기지외곽의 지하에서도 기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 24일까지 미군부대 담장외곽 6개지점과 녹사평역 기름유출지점 인근 2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에서 다목적관정을 뚫어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녹사평역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부대담장외곽의 1개 관정에서 기름성분이 발견됐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시관계자는 나머지 7개 관정에서도 기름냄새가 나는 곳도 있으나 지하수위가 안정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8개 관정의 지하수위가 안정된 다음 유류성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용산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기지주변의 땅과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미군기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이 9월 26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루마니아 사회주의노동당위원장이 9월 27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가나대통령, 나이비아대통령, 브룬디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쿠바 국가평의회 피델 카스트로의장이 9월 22일 아바나주에서 진행된 공개연단에서 한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어느때든 쿠바를 침략하는 경우 쿠바 민중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외무상이 9월 24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개별적인 나라의 일방주의적 행동이 국제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험한 도전들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야인사 이모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미국 비행기테러사건의 원인을 미국의 패권주의와 신 이스라엘정책이 자초한 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홍, 김홍신의원이 ≪2002 국민제안센터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대학교수 1,408명에게 물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테러참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306명이 미국의 책임을 꼽았고 208명은 반미과격지휘자들의 극단적 충동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 교수들이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격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테러배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또 28%는 경제제재조치 등 비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군사적대응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의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응답의 82%가 전투, 비전투 구분없이 군사적 지원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미국지원을 빌미로 자위대파견을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 및 한반도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리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대학교수 1만 3,093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1,408명이 응답했습니다.

미국테러사태여파로 산업생산이 3개월째 줄어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국각지에서 반이회창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회창을 비난하며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형집행정지 등 이른바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성천강 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함경남도안의 건설자들에게 9월 26일 감사문을 보내시였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이집트 신문 ≪알라이≫ 9월 24일자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연변일보≫ 9월 21일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9월 19일과 22일 중국 심양시, 체코로끼짜니시에서 친선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에콰도르 끼또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연구소조, 콜롬비아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9월 13일과 19일 ≪**김정일**장군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혁명영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0월 3일

정부당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할때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두 나라의 외교통상,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이른바 한미고위전략기획협의회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구상중인 이 방안은 한국측에서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미국측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며 매년 두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에서 회의를 번갈아 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정부당국이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추종하려는 기도인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공조가 중요한데도 당국이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미고위전략기획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은 대세에 역행하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에 있던 미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미국의 대테러전쟁지원을 위해 중동지역에 투입됨에 따라 이른바 한반도전력공백을 메꾸기 위해 미공군전력을 한국에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당국은 강원도 일대에 3,700만평의 컴퓨터장비를 배치해 사이버교전훈련장을 도발해놓고 요즘 이른바 사이버전투훈련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이회창반대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도 이회창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회창의 사당으로 전락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에는 이회창의 독단과 독선만이 판을 치고 있어 당내 민주화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이다. 이회창을 비판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당직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회창은 당내 독선을 실현하기 위해 측근들을 주요당직에 들여앉히고 자신의 독선과 독단을 마음대로 누릴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회창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다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소속의원의 절반이상이 이회창의 대선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치하게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이 구속된 언론사주석방을 요구하고 나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광근수석부대변인은 2일 성명에서 언론탄압을 운운하며 구속중인 언론사주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된 언론사주들이 조세수탈과 자금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한나라당이 언론탄압이라고 떠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민의에 역행하는 용납될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지난 99년초부터 올 2월말까지 2년반동안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혐의로 기소된 정치인과 차장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23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강원도 합천군 서낭면 대성리의 마을의 논밭에 군부대사격장에서 날아온 폭탄들이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이로인해 벼베기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일 이북을 방문한 몽골 **김정일**유치원친신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주년에 즈음해 사주공화국대통령,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9월 11일에 간행된 프랑스 잡지 ≪**≫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선대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9월 24일 이집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0월 4일

공안당국이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했던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횡포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동안에 일어난 살인과 강도 등 5대범죄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연속 증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개천절에 즈음해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의 주최로 3일 단군릉에서 개천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에콰도르 모로나싼띠아고주이사회에서 명예시민증서와 열쇠, 메달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마다가스까르 노농투쟁당, 우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우가지지부, 민주콩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9월 26일과 27일 강연회들이 진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나이지리아 전국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9월 27일 아브쟈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4일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블레찐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블레찐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조러모스크바선언의 요지를 게재했습니다.

주체 90, 10월 5일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이 4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4일 낮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이 단병호위원장을 재구속한데 항의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각계 민중은 한미당국이 한국에 미공군전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데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반발하던 구미 열병합발전소가 파업에 들어가 4일 구미공단업체 50여군데가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른바 병역비리 몸통으로 알려진 박노항원사가 병역면제 등을 알선하고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돈있고 권세있는 자들이 자식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오형근 청와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과 야스쿠니신사참배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총리의 방한은 국민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총련 도쿄도본부는 도쿄도지사 이시하라가 이북을 모독하는 망언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2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4일 에콰도르 모로나싼띠아고주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경축 중앙미술전이 3일부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39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시리아신문 ≪알 우스브 알 리아주≫와 이집트 신문 ≪알 라이≫가 각각 특집했습니다.
시리아 신문 ≪알 우스브 알 리아주≫ 9월 3일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라는 제목으로 액면 3면에 걸쳐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네째부분의 상세한 요지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사회주의의 수호자 **김정일**≫, ≪**김정일** 담력≫, ≪러시아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 ≪이남에서의 미군철수가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1돌에 즈음해 인도신문 ≪기이즈 데이즈≫ 9월 27일자가 ≪한반도는 연방제방식으로 통일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 2일 요르단강 중앙지역의 까말라스시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을 무력으로 탄압해 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대학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데 항의해 2,000여명의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시위참가자들에게 최류탄을 쏘아대면서 탄압에 광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6일

제5차 남북당국간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4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지난 3년동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해 평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현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된다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쌍방은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 이래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당국사이의 회담이 진행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자기 측의 입장과 제안들을 내놓고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제2차회담은 오는 19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의 재수감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5일에는 40여개 시민단체가 단병호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의 친일행적과 친미행적까지 드러나 각계에 반이회창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초에서 독초가 돋아나듯이 매국역적의 후예인 이회창이 친일친미 매국역적으로써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국내 재소자들의 복역환경이 열악한데 비해 미군범죄자들이 수감된 교도시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노조가 안산과 구미의 열병합발전소매각에 항의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노조원 20여명을 긴급체포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도 영월군 **군 모 공군기지 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을 하던 ≪에프4≫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전투기 추락사고는 지난 4월 충남 경산의 ≪에프4≫전투기 추락과 2월 경북 안동의 ≪에프16≫추락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입니다.
이같은 사고는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감행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러시아 노보씨비리스크주 웨. 아. 똘로꼰스끼 행정장관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9월 27일 노보씨비리스크주 행정장관이 러시아주재 이북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쿠웨이트국왕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9월 27일 러시아 ≪빨레야-미쉰≫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 관하 구분대와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211군부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대 194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9월 24일 기니 라디오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세계, 사회계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비범한 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북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시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란 외무성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피난민수용소를 공격해 6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을 살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로인해 국제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